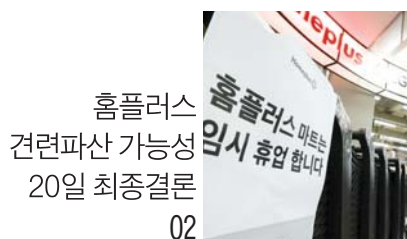


코스피	코스닥
6856.83 (+49.90)	783.98 (-15.38)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887 (+0.078)	1493.90 (-9.50)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전문가·시민, 규제완화 한 목소리 “비아파트 총수·연면적 제한 풀어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60명 참석
정비사업 대출 기준적용 도마 위
일각선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도

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규제 완화의 성토장이 됐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총수와 연면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지역의 정비사업 대출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은 국토부가, 내일은 금융위원회가, 모래는 기획재정부가 각각 주택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며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전문가와 시민 모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입주까지 파이프라인 흐름으로 봐야하는데 지금은 과정마다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는 금융·세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와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파트와 같이 규제지역에 묶여 대출계약도 크고,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보증 상품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명희 신길2지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자체가 없다”며 “투기자금이 아닌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이 절반에 달해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상 단지 가운데 시공은 7%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보니 규제 완화 목소리만 가득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하는 방안만이 우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 잠재성장률 3% 이뤄야”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 여론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잠재성장률을 3%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 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

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2면에 계속〉

/서재진 기자 syj@



metro

‘3高 위기 극복’ 정책역량 집중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전기료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농축수산물 할인권 매달 발행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농축수산물 할인권을 다달이 발행한다. 오는 9월 추석 대책과는 별도로, 매월 20% 내외의 이른바 ‘상시 할인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환율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14조 원대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유관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舊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책 운용 시 이 같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험 대응’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석유류 및 장비구니물가의 안정, 생계비부담 완화 등 고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농축수산물권(할인 20%)을 매달 발행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대개 명절을 앞둔 시점에만 발행해 왔다. 설과 추석 때 각각 100억 원, 150억 원대로 편성하던 지원 규모도 월 200억 원대로 확대한다. 단, 중동발 충격을 받은 특수 상황하에서의 한시적 조치다.

특히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쌀·계란·돼지고기·고등어 등 22개 품목이었다. 1인당 할인 한도도 주(週)당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도매시장 출하 및 수입의 확대를 추진해 공급·유통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수입과일과 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최대 30%포인트(p)가량 낮춰 국내 공급을 확대한다.

달걀의 경우, 수입 물량을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해 신선란 2억 개를 7~8월

중 들어올 계획이다. 이를 중소형 유통업체 및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도 공급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불법 행위로 거둬들인 이익에는 2배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반복담합 사업자 제재방안으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임원해임명령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재경부는 이러한 징벌적 조치가 ‘불가인정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가스 및 전기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내지 인상 최소화가 확산하도록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놓여진 면세유 보조금 지급, 알뜰폰 활성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원·달러 환율 대응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를 현행 대비 1조 원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총 3000억 원) 상품을 신설한다.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법인세·부가세·소득세·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 할인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변동금리대출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전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저신용자들의 신용 개선을 위해 소액 저리 장기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2027년도 햇살론의 공급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내년 최저임금, 1만 530원 이상 전망

2% 인상 근접… 노사 입장차 여전

내년(202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적어도 올해 보다 2.0% 오른 1만 530원 이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까지 노사 양측은 총 9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출 끝에 간극을 690원까지

좁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20원(올해 대비 8.7%, 900원 인상)을, 경영계는 1만 530원(2.0%, 210원)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경영계는 2.0%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고수하며 노사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최임위는 이날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李 대통령** “낙태약 허용해야…해외직구, 사고 방치 무책임”
- ▲ **송영길**, 탈당 이력 공격당하자 정청래에 역공 “철저히 선청후당”



- ▲ **목포·순천 의대** 중재안 사실상 결렬…기획위 “추가 절충안 없다”
- ▲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이 대통령과 정청래는 정치적 동지”

/사진 뉴스시

- ▲ **국방부**, 고작 1건이라 했지만 군 장병 거소투표 사고 39건
- ▲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李 대통령 “그 애기는 나중에”

홈플러스, 29년 역사 끝나나… ‘견련파산’ 현실화 가능성

〈牽連破産〉

전국점포 영업 임시중단

2000억대 자금조달 대책 ‘안갯속’
상품권 활용 등 현장 극심한 혼란
파산시 담보신탁 점포 향방 촉각

삼성그룹에서 출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홈플러스가 출범 2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일반 파산이 아닌 ‘견련파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우량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유통업계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의营业을 임시 중단하며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화생법원은 지난 3일, 회생에 필수적인 최소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홈플러스가 자금 조



1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가 쇼핑 카트로 막혀 있다.

/뉴시스

달 방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 자금 투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신규 대출을 요청받은 메리츠금융그룹도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이 극에 달하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13일 오전 운영 중이던 67개 점포의 휴업이 발표되면서 상당수 직원이 상황을 모른 채 출근했다가 발길을 돌렸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정상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유한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항의가 빚발쳤다. 이런 가운데 14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홈플러스 노조 간의 공식 면담마저 MBK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당일 아침 취소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일반 파산이 아닌 ‘견련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

차가 폐지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기업의 신청으로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로,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임직원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는 일반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채권 신고와 변제 순위가 다시 정리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견련파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파산이 현실화 되면 홈플러스 점포 중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신탁으로 묶인 62개 알짜 점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메리츠가 담보권을 활용해 우량 점포만 골라 파는 ‘선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 후보로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포를 분할 인수하는 방안과 함께, 도심 물류 거점 확보를 노리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형마트 산업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어 실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1면 ‘후 대통령 물가·부동산…’서 계속

“수백억대 ‘똥똥한 한 채’ 세제 감면은 문제 있어”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경제대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 토론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받은 후 “똥똥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100억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감면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 변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그렇게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

》1면 ‘내년 최저임금…’서 계속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심의·축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공익위원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전면 개편해야” 정부에 권고

한편, 이날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에서 부결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AI 확산, 플랫폼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가 매년 유사한 논의로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차세대 폴더블폰 공개 임박… ‘엑시노스’ 활용 주목

엑시노스2600, 성능 긍정적 평가 비메모리 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가는 가운데, 차세대 폴더블폰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2600’이 얼마나 탑재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엑시노스2600의 채택 확대 여부가 비메모리 사업 수익성 개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폴드8·플립8’과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Z폴립8이 전작인 갤럭시 Z폴립7과 달리 지역별로 퀄컴과 엑시노스 AP를 나눠 탑재할 가능성에 무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게를 두고 있다. 엑시노스2600은 한국·유럽·남미 등 일부 지역 판매 모델에 적용되고, 미국과 중국 판매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5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갤럭시 Z폴드8과 와이드폴드에는 전 지역에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5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엑시노스2600은 올 초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며 성능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작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연산 성능은 최대 39%, 생성형 AI 성능은 113% 향상되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폴더블폰에도 엑시노스2600의 탑재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이를 설계·생산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흑자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메모리 사업은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플레그십 칩인 엑시노스2600의 판매 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 AP 시장에서 엑시노스의 점유율은 7%로 전년 동기(5%)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엑시노스2600 확대는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모바일 경험(MX)사업부의 수익성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엑시노스2600은 퀄컴의 플레그십 AP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원가 절감과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2600의 성능이 전작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플립 시리즈에서 채택 비중이 확대된다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탑재 비중은 출시 이후 지역별 판매 전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中 철강업계, 전기강판 등 공세 확대… 韓, 고부가 전략 ‘시험대’

中, 자동차강판 등 추격 거세

중국 철강업계의 공세가 열연·후판 등 범용재를 넘어 전기강판·자동차강판 등 국내 업계의 미래 고부가 제품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술력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를 따돌리려던 ‘고부가 차별화 전략’도 정면 경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티타늄 사업 전면 철수를 검토 중이다. 포스코가 지난 2008년 진출해 2010년 상업 생산한 티타늄은 강철보다 약 40% 가볍고 강도·내식성이 뛰어나 방산·우주항공 등에 쓰이는 고부가 비철금속이다. 국내 유일의 티타늄 코일 판매 생산업체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생산

량이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적자가 누적됐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전기강판에서도 중국의 추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변압기 수요까지 늘면서 전기강판은 국내 철강사들의 핵심 성장 제품으로 꼽힌다.

중국 철강 전문매체 아웃룩 위클리리는 지난 5월 중국 철강기업 서우강이 지난해 8월 두께 0.10mm의 자동차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은 신에너지차 모터의 소형화·고출력을 겨냥한 제품으로 출시 후 10여개 완성차 업체가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기존 0.25mm 제품보다 철손을 30%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두 주자인 포스코는 철손 3.5W/kg 이하의 고효율 전기강판 브랜드 ‘하이퍼노’를 앞세우고 있다. 하이퍼노 제품군 가운데 0.15mm 초극박 무방향성 전기강판도 상용화했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전기강판은 얇을수록 압연·평탄도 확보가 어렵지만 두께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진 않는다”며 “청정강 제강부터 주조·압연·열처리·절연코팅까지 전 공정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모터 효율을 좌우하는 전기강판뿐 아니라 차체 안전성과 경량화를 책임지는 자동차 구조재에서도 중국의 기술 고도화가 뚜렷하다. 중국 하북강철(HBIS)은 체리자동차와 지난해 12월 2400MPa급

초고강도·고인성 열간성형강을 개발해 도어 충돌방지범 성형과 실차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400MPa가 사실이라면 놀라운 기술 진전”이라며 “자동차 구조재에서 한중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경우 생산 규모에서 열세인 국내 업계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자동차용 초고장력강 브랜드 기가스틸을, 현대제철은 3세대 초고장력강과 핫스탬핑강을 앞세워 고부가 자동차강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상당히 뛰어난 단계에 올라섰다”며 “타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고망간강 등 8대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가능성 고부가 전략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chalsals@



metro

반도체·추경효과에 성장률 3%… 정부, 경기전망 ‘낙관 전환’

재경부, 산업·민생대책 공개
OECD·IMF 예측치 2.6% 웃돌아
취업자 15만명·물가 2.6% 제시
AI·바이오 육성·주택 공급 속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종전 대비 무려 1%포인트(p) 올린 3%로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기에 더해, 중동 사태에 맞선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관측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일치된 예측치인 2.6%를 크게 웃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舊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예측인 2.0% 성장과 비교했을 때 ‘관망’에서 ‘낙관’으로 태세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경 등 정책효과가 완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 13.(월)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약’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또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경상성장률이 전년대비 1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의 최대 폭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 추산도 내놨다.

그러나 취업자 수 관련해서는 종전의 16만 명 증가에서 15만 명 증가로 소폭 내렸다. 소비자물가 부문도 2.1% 상승에서 2.6% 상승으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일자리 둔화 전망에 대해 “성장

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탓에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재경부의 강기룡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는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축소까지 감안해 취업자 전망을 1만 명 낮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설비가 자리한 지역과 대기업, 관련 인력은 성장세의 덕을 톡톡히 본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과 건설업, 자영업, 청년층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물가 오름폭이 크면 소비 위축이 뒤따른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을 7~11월 기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며 ‘올해 민간소비의 2.0%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의존도가 99%에 가까운 국방반도체를 국산화하고,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올해 3분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반도체법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수요를 적극 창출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글로벌 톱10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을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로드맵을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하고, 건강검진 데이터 표준화·연계, AI 기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발 주거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3기 신도시 및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 재경부가 최종 조율 중인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안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800호)과 인천 계양(1100호) 등 1만2000호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3분기 중 발표될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국민적 관심사다. 정부는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 국민의권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거래세·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물가 잡자니 경기 부담… 금리인상 ‘진퇴양난’

한은, 중동발 유가 급등에 섹법 복잡
기업·가계비용 늘어 경기둔화 우려

중동 리스크 재점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판단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기업 비용과 가계 실질소득 부담을 키워 경기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중동 긴장 고조 속에 배럴당 84달러대까지 올랐

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9달러대까지 뛰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흐름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전 세계 LNG 거래의 약 20%도 이 해협을 지난다. 해당 지

역의 긴장이 커질수록 원유·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 상승, 물가엔 상방 압력

한국 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부담이 더 크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겹칠 경우 원화 기준 원유 도입 비용은 더 커진다. 이는 석유류 가격과 수입물가, 기업 생산 비용을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미 국내 물가는 한은 목표를 웃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다시 뛰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할 명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신 총재는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엔 하방 압력, 추가 긴축은 부담
다만 유가 상승을 곧바로 추가 긴축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

은 물가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기업 비용과 가계 부담을 키워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운송, 항공, 석유화학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업종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가계는 연료비와 공공요금 부담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한은의 정책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물가만 보면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강해지지만,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를 누르면 인상 이후 속도 조절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유가 충격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직접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은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지역경제와 시민이 상생하는 공간,

모두가 행복한 All Good POEX

철강·해양 등 지역 기반 산업과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신성장동력의 거점!
포항 마이스(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컨벤션센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MICE산업
생태계 구축**

**시그니처
마이스행사 개발**

**국제행사
및 공연 유치**

**시민 친화형
문화휴식공간**

선대·항만 인프라 키우고 친환경·자율운항으로 경쟁력 강화

HMM



◆미국-이란 전쟁 속 실적 상승 기조 이어가

HMM은 올해 2분기 매출 2조9928억원, 영업이익 28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1%, 20.5% 증가한 수준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한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올 초 예상과 달리 실적 개선을 기록할 수 있는 비결로 해상운임 상승이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 1800대에서 7월 초 3300대까지 상승하며 300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물동량 병목 현상과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둔 선제적 재고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운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해운업계는 올해 2분기 초까지만 해도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월 이후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동 노선 차질과 공급 부족 현상이 운임 상승으로 이어졌고,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운임이 뛰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올해 3분기에도 이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3분기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물동량이 확대되며 해운업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컨테이너선·벌크선 선대 확장

HMM은 컨테이너 부문의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허브 앤 스포크는 대형선이 원양항로 거점을 맡고, 중소형 피더선이 지선망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출발지와 목적지가 연결되어 있어 화주들에게 유연한 운송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HMM은 지난해부터 총 35척을 확보해 피더선 선대를 52척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7월 7일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의 첫 항차를 시작했다.

피더선 5척이 투입되며 왕복 운항 기간은 35일이다. 혼잡도가 높은 서아프리카 항만 구간을 별도로 운영해 초대형선의 운항 정시성을 높이고, 지선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HMM은 내다봤다. HMM은 향후 글로벌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대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항만 인프라 확대도 병행 중이다. 자체 운영 중인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TTIA)은 확장 승인을 받아 공사과 장비 발주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브라질 산토스 항만 신규 터미널 입찰과 미국 서부 터미널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또 HMM은 벌크선 선대 확장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벌크선 비중은 지난해 말 51척에서 올해 3월 59척, 지난달 61척으로 38.6%까지 확대됐다. 주 사업인 컨테이너선 운용 차별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와 함께 벌크선에 대한 집중과 증가 속도가 빨라 수년 내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

HMM이 친환경 선박 확대와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시스템 도입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최원혁 사장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컨테이너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벌써부터 결실을 맺으며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HMM은 2030년까지 2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을 세운 가운데 올해는 효율과 친환경 전환, 질적 성장을 통한 수익 구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분기 매출 2.9조, 영업이익 2809억 해상운임 3000선 회복에 실적개선

컨테이너 '허브 앤드 스포크' 전략 피더선 선대 52척·'MA2' 첫 항차 초대형선 정시성·지선망 탄력 운영 스페인 터미널 확장 공사 준비 중 2030년까지 벌크선 110척 확대

메탄올 연료 'HMM 그린호' 인수 IMO 보다 앞선 2045 넷제로 제시 33척 선박에 자율운항 솔루션 설치



① 지난 3월 24일 HMM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HMM 50주년 기념식'에서 최원혁 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② HMM이 유럽-아프리카 지역 허브 항만으로 활용하는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의 자영터미널(TTIA). ③ HMM의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그린호'(HMM Green). ④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오팔호 브리티지에서 선원이 AI 자율운항 시스템의 모니터를 보며 항로를 확인하고 있다.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MM은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벌크선을 110척으로 늘리고 매출 비중도 22%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벌크선의 경우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 투자 확대…디지털 전환 효율성 극대화

HMM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MM은 2025년 3월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하며 메탄올 추진선 도입을 본격화했고, 해당 선박은 회사 측 설명 기준으로 바이오메탄올 사용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65% 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후 2025년 10월에는 1만3000TEU급 LNG 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며 친환경 선대 확충을 추가로 결정했다. LNG 연료는 기존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이상, 질소산화물은 80% 이상, 황산화물은 99% 이상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4월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HMM 라임호 명명식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2050 넷제로보다 5년 앞선 2045 넷제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친환경 투자를 확대해 지속 성장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친환경 선박은 벌크선도 예외가 아니다. HMM은 지난달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벌크선 8척, 가스선 2척 등 친환경 선박 10척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0척 모두 이중연료 또는 다중연료 구조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HMM은 2026년 1월 HD한국조선해양, 아비커스와 '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 계약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44척 선박에 자율운항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운항 솔루션을 통해 최적 항로로 운항하면 연간 연료비를 평균 4% 절감할 수 있다. HMM이 보유한 전 선박에 이를 적용할 경우 한 해에 400억원 넘는 비용을 절감 효과를 기록할 수 있다.

현재 33척에 AI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는 올해 연말까지 목표한 44척 중 75%의 진행률이다. HMM은 2030년까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123척 전부에 하이나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형 선사 중 100척 이상 전 선단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HMM이 세계 최초다.

HMM 관계자는 "연료비는 선사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섬세한 운항 속도 유지를 통해 4%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기술"이라며 "2030년까지 전 선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M이 친환경 선대 확장과 항로 운영 방식, 자율운항 기반 디지털 전환의 추진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문화강국의 내일은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는 중

과거의 아름다움부터
기대되는 미래까지
그려보고 상상하는 곳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기에

KB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시작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박물관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일상 속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 KB금융그룹

“6000만원이면 된다더니”… 마곡 토지임대부 청약 논란

국토부 대출규제 일부 완화했지만
최초 제시했던 대출 조건과 달라
비상대책위 구성해 원상복구 요구

국토교통부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당첨자에게 대출 조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대출 조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 입주자들이 '사기 청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청약세대에 “국토교통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청약 당첨자에 한해 대출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린다”고 공지를 보냈다.

마곡17단지의 경우 SH가 토지를 소유하고 입주자는 지상의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주택이다. 59형 기준 분양가가 3억원 초반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인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전경. /독자 제공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월마다 66만원의 토지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다.

구체적인 사전청약자대출 조건을 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LTV를 6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기금e든든’에 신청 후 대출에 소요되는 50일의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공공분양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마곡17단지와 고덕강일3단지 등을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나눔형 주택의 대출 조건은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금리 금리 1.9%~3%, 만기 40년)이었다. 대출 형태도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장기 저리 모기지 지원으로 홍보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르면, 59형의 경우 현금 약 6000만원만 마련하면 입주가 가능했다. 그런데 대출 조건이 강화되고 수도권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5500만원)가 반영되면 필요 현금은 1억 8000만원대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실입주를 약 두 달 남기고 대출 조건이 뒤바뀌자 마곡17단지, 고덕강일3단지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대출 조건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디딤돌 대출이라도 대출 심사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4.5%까지 뛰어 입주자

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당초 사전청약할 당시에 나왔던 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완화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대출 조건 완화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S3블록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금융지원 조건과 차이가 나 입주자들이 단체 반발하자, 사전청약자 지원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완화된 대출 조건을 본 청약자에게 적용할 근거는 약하다고 설명했다. SH는 본 청약 공고시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최대 60%로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마곡17단지 외에도 고덕강일3단지 등 대출 조건 변화로 당장 현금 마련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주자들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정부에 대출 조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최호정 SH토지임대부주택비상대책위원장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LTV가 80%로 완화돼도 80%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

다”라며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율이 너무 높아서 최초의 제시했던 저리 대출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금리가 오르는 것이어서, 대출 조건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대면보고를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조 의원은 입주자 단체와 함께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한 대출 조건은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기 청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 대출 조건을 걸었다가 그 조건이 달라지면 자금조달계획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의 정책 이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은 적어도 정책 신뢰도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여야 원 구성 또 결렬… 상임위 협상 평행선

‘2+2’ 회담 열었지만 합의 실패
국힘, 위원장 배분 기준 법제화 제안
민주당 “사전 논의 없는 사안” 거절

여야 원내지도부가 14일 후반기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2+2’ 회담을 가졌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또 연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거면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제도를 법제화하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에 동의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직 배분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까지 협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법제화를 두고 “꼭 단진 제안이었을 뿐”이라며 “사전에 숙의하거나 논의된 사안도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한 직무대행은 “원 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민생 법안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메가특구 등 경제 관련 현안이 모두 멈춰 있다. 원 구성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을 주재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헌절 전날인 16일까지 원 구성 결과를 가져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오세훈에 부동산 해법 주문

오 시장, ‘부동산정책 개선안’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시라”며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오 시장은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완전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과정에서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정리했다.

/서예진 기자 syj@

선호투표 도입 강행… 민주당 최고위 파열음

청년최고위원제는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가능하게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건을 의결했다. 친청(친정청대)계에서 반대하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회의를 열고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선출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 건은 의결이 됐다”면서 “청년최고위원 선출 방법 관련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선출하고자 했다. 결과는 표결에 의해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당규 개정의 건은 표결하지 않고 구두동의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후 당무위를 열고 당규 개정의 건을 논의한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은 다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 회부돼 재논의할 예정이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대거 반발했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호투표 제도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의 건은 당헌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중간에 나와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수도 없이 반대했는데, 전준위는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최고위에) 올리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기자들을 만나 “국정의 무한책임은 지고 국민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순간의 쉽다 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할 집권여당 민주당을 멈춰세울 수 없기에, 파국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며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진짜 엄마의 심정을 알 것 같다. 살려야 했기에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아플 수 없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는 작년에 전준위와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 경선 후보가 3인 이상 있을 때 선호투표로 한다고 의결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당헌과 당규에 맞지 않다고 당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 최고위원의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 분노하는 것은 전준위에서 청년최고위원을 반드시 뒤야 한다는 전준위원분들의 동의와 의결 통해서 제안이 된 상황”이라며 “이를 부결하겠다는 사람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하지 않겠냐는 것 아닌가. 그런 최고위원이 당의 지도부 자격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청대대표와 함께 한 지난 1년이 불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 전 대표는 1인1표제와 당원 주권을 말하지만 (사실) 당권을 갖고 있는 정 전 대표의 1년이었다”며 “최고위원 간 토론도 한 번 없고 전락공천도 상의 없이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은행권, 경영진 인사 임박...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촉각’

5대 시중은행장 연내 임기 만료
연임 통한 경영 연속성 확보 전망
실적추이·내부통제 등 변수 산적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잇따라 만료되는 가운데 이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금융권에서는 연임을 통한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에 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른 데다 일부 은행의 내부통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막판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올해 말 종료된다.

관건은 ‘안정’과 ‘변화’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다. 지난 2024년 말 인사에서 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이 새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행장을 선임하며 한 차례 세대교체를 마친 만큼, 올해는 대규모 물갈이보다 연임을 통한 경영 연속성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취임 첫해인 2023년 3조6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조6959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순이익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3조7758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안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는 정 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취임 당시 은행장 임기 관례로 여겨졌던 ‘2년+1년’ 체계를 넘어 ‘2년+2년’ 임기를 부여받아 총 4년간 재임한 만큼, 장기 재임에 대한 부담과 세대교체 요구가 변수로 거론된다.

첫 임기를 마치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조86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다. 하나은행도 3조7475억원으로 전년(3조3564억원) 대비 11.7% 성장하며 외환

과 기업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평가가 엇갈린다. 정 행장은 취임 이후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 안정화, 영업 경쟁력 제고에 공을 들였지만 실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6070억원으로 전년(3조390억원)과 비교해 14.2% 감소했다. NH농협은행보다 뒤처지며 5대은행 가운데 끝으로 밀리는 ‘어닝쇼크’를 나타냈다.

농협은행 역시 전통적으로 행장 연임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범농협 차원의 쇄신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변수로 꼽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 하반기 지주 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관련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관련 모범규준뿐 아니라 법률 개정안을 모두 망라할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도 당국의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임을 통한 경영 연속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연말까지 실적과 내부통제 이슈,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만큼 최종 인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가상자산업계, 토큰증권 등 ‘새 먹거리’ 준비

거래소, 가상자산 제도화 이후 대비
수익 다변화 관련... 은행·증권사 협업

가상자산업계가 미래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새 먹거리’도 준비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의 입법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제도화 이후의 ‘지각변동’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 금융권 ‘합종연횡’ 활발

14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은행 및 증권사와의 협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5월 대규모 지분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4대 주주로 부상했고, 같은 달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의 주요 주주로 입성했다. 이달 초에는 미래셋증권의 코빗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최근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금융권의 차세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은 복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통해 화폐나 증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송금 비용이 낮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업과 금융업 간의 장벽으로 가능했던 ‘금각분리 원칙’도 폐지 수준에 있다.

은행에선 ‘스테이블코인’이 환전 및 송금, 결제 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 가치와 연동돼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 대비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송금 시 발생하는 비용도 절반 수준이다. 또한 은행권의 ‘슈퍼앱’ 경쟁도 본격화한 만큼, 앱 내에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장착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증권사에선 가상자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나 토큰증권 등 파생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빙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시스

가상자산ETF의 발행이 안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는데, 거래소에서는 직접 취급이 불가한 만큼 증권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여겨진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임박한 것 또한 증권업계가 거래소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코인원(8월), 빙썸(9월), 업비트(10월)까지 주요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계약도 종료된다. 국내에서는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시 실명계좌를 연결하도록 정하는데, 거래소별로 1개 은행과의 제휴만 가능하다. 실명계좌 유치를 통해 대규모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원화거래소의 실명계좌 제휴는 금융권의 큰 관심사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빙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펹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빙썸과 코인원은 기존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지만, 업비트는 최근 하나은행이 4대주주로 부당한 만큼 향후 실명계좌 은행이 변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물결

미국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중복 규

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여겨진다.

클래리티법의 통합 법안이 공개되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의 입법 지연이 국내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고, 탈중앙화거래소(DeFi)의 활성화 등 시장 환경 변화로 매출을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현재 체제를 지속할 수 없어져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더 큰 과제는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익구조 다변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한 만큼, 관련 규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카드사, 홈플러스 할인·제휴 등 혜택 축소

파산 사태 대비... 고객 불편 최소화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할인권 사용처에서 홈플러스를 제외하며 실질적인 가맹점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나선 것. 일부는 홈플러스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하며 홈플러스 파산 후폭풍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하나카드는 소핑케어 멤버십 할인 혜택 서비스 목록에서 홈플러스를 제외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맹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5000원 대형마트 할인권을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내달 13일부터는 온라인몰 할인 멤버십 서비스도 제한된다. 홈플러스 온라인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5000원 할인 멤버십을 삭제하고, 올리브영, CGV, 투썸플레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도 홈플러스 소핑케어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한한다. 홈플러스 온라인 5000원 할인권 제공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폐지한다. 대신 11번가 5000원 할인권을 지급한다. 지난 12일에는 홈플러스

오프라인 할인권 이용을 중단했다.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나선 곳도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로 홈플러스 제휴카드인 ‘홈플러스KB국민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임직원 전용 카드, 가족 카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홈플러스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 삼성카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뒤 제휴카드 발급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홈플러스스페셜 신한카드’를, 삼성카드는 ‘홈플러스삼성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되면 카드사들은 본격적으로 홈플러스 할인 혜택을 종료하고, 다른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혜택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제휴업체의 휴업, 파산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처를 마련해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파산과 관련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불편이 커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그에 따른 행보로 보편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 착수

예정보다 보상시기 4개월 앞당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4개월 앞당겼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 3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를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

협의절차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토지, 지장물, 영업

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주민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한 달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기·LG이노텍, ERP 대전환… AI 자율형 기업 시동

(전사적자원관리)

SAP, 나우 AI 투어 코리아 개최

삼성전기, 8.5TB 무중단 이관 성공
비가동 144시간서 34시간으로 단축
LG이노텍, 클라우드 기반 본 구축
보안·효율 놓고 데이터 전략 엇갈려

전자부품 업계가 회사 운영의 중추인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교체에 나섰다. 삼성전기는 공장을 멈추지 않고 전환을 마쳤고 LG이노텍은 본 구축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AI가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자율형 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SAP코리아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SAP 나우 AI 투어 코리아 2026'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차세대 ERP 전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기는 시스템 비가동 시간을 당초 144시간에서 34시간으로 76% 줄이며 제조라인을 멈추지 않고 8.5테라바이트(TB) 규모 데이터를 옮겼다고 밝혔



(오른쪽부터) 얀 번거트(Jan Bungert) SAP 비즈니스 AI 플랫폼 부문 CRO와 박준호 삼성전기 그룹장이 패널토의 하는 모습. /SAP코리아

다. 라인이 서면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큰 부품 공장에서 무중단 전환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이번 전환으로 ERP와 생산관리시스템(MES), 공급망관리(SCM) 등 영역별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SAP의 차세대 ERP 'S/4HANA(실시간 데이터 처리형 ERP)'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됐다. 새 시스템은 국내의 전 법인에서

가동 중이다.

구축은 삼성SDS가 수행했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는 삼성전기가 맡았다. 데이터는 삼성SDS의 자체 클라우드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서 운영해 보안을 높였다.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약 35% 줄었고 업무 효율은 25% 이상 높아졌다.

박준호 삼성전기 그룹장은 "ERP 전환

은 심장이식 수술과 같다"며 "국내 성공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조라인 중단 없는 전환을 완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된 주요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실시간 분석 환경을 구축한 국내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LG이노텍에서는 박준기 차세대 ERP 추진실 실장이 클라우드와 자율형 기업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ERP 여정을 발표했다. LG이노텍은 레거시 시스템을 SAP 기반 차세대 ERP로 전환하는 본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축은 LG CNS가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초 차세대 ERP 추진실을 신설하고 전환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환 대상은 SAP의 클라우드형 ERP 'S/4HANA PC E'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데이터 운영 전략은 갈렸다. 삼성전기는 그룹 자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두고 LG이노텍은 SAP의 클라우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핵심에 있는 두 부품사가 데이터 보안과 클라우드 효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택한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 SAP는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스스로 감지·판단·실행하고 사람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자율형 기업(Autonomous Enterprise)' 전략을 공개했다. ERP 교체 흐름은 두 회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SAP가 구형 ERP인 ECC의 표준 지원을 2027년 종료하지만 가트너 조사 결과 전체 사용 기업의 약 3분의 2가 아직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기업용 소프트웨어 3개 중 1개에 자율 실행형 '에이전틱 AI'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기는 공급망 계획부터 실행과 분석, 시뮬레이션까지 AI가 순환 수행하는 '클로즈드 루프' 자동화를 다음 목표로 제시했다. 박준호 그룹장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접근은 반반이 실패했다"며 "사람이 최종 판단에 개입하는 '휴먼 인 더 루프' 기반으로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체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KAI, LAH 차질·고환율에 2분기 수익성 '주춤'

2분기 영업이익 18.6% 감소 전망

LAH 납품 지연·환율 상승 부담
KF-21·FA-50 매출 확대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올해 2분기 소형무장헬기(LAH) 사업 차질과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 둔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KF-21 초도 양산 물량의 공군 인도와 LAH 납품 정상화, 폴란드·말레이시아 FA-50 사업의 매출 확대가 연간 실적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KAI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을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을 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44.5%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18.6% 감소한 수준이다.



KF-21.

/KAI

2분기 영업이익 감소에는 LAH 엔진 결함에 따른 납품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AH는 지난 4월 엔진 이상이 확인돼 5월부터 이미 전력화된 기체의 비행이 중단됐으며 일부 납품 물량의 매출 인식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수익성

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공급되는 FA-50은 엔진과 레이더, 일부 무장 등 해외 조달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생산 원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국내 완제가 인도 물량 증가가 실적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초도 양산 물량은 3분기부터 공군 인도가 시작되고 4분기에는 인도 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LAH 납품까지 정상화되면 상반기에 반영되지 못한 물량이 매출로 이어지면서 국내 사업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FA-50PL과 말레이시아 FA-50M 사업도 생산 진행률 상승에 따라 완제가 수출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인

식 규모가 늘고 내년부터 양국에 대한 인도 물량이 확대되면 수출 부문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해외 사업은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KF-21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구매 계약은 없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향후 양산기 도입 물량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완제가 인도 일정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KF-21과 LAH 인도가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로 이연될 수 있어 예정된 물량을 제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DI, UPS 배터리 글로벌 화재시험 통과

삼성SDI의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배터리가 대형 화재 상황에서도 주변 설비로 불이 번지지 않는 안전성을 입증했다. 인공 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배터리 공급 조건으로 화재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UPS용 배터리 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SDI는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가 주관한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Indoor LSFT)에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14일 밝혔다.

UPS는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 등 전력 공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배터리에 저장된 비상전력을 즉시 공급하는 장치다. 서버의 안정적인 가동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에서 핵심 전력 설비로 활용된다.

Indoor LSFT는 UPS 배터리 랙 내부의 모듈을 강제로 전소시킨 뒤 인접한 랙이나 시스템으로 화재가 확산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원관희 기자

LG채널, 37개국·5000개 채널로 글로벌 확장

폴란드 진출로 유럽 17개국 서비스
현지 맞춤형·K콘텐츠 경쟁력 강화

LG전자가 자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LG채널'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하며 콘텐츠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서비스 국가를 37개국으로 늘린 데 이어 운영 채널도 5000개를 돌파하며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폴란드에 LG채널을 론칭하며 LG채널 운영 국가를 37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출시 국가 확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확장하며, 전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LG채널의 채널 수도 총 5000개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출범한 LG채널은 LG전자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웹OS의 간판 콘텐츠 서비스로, 각 국가와 지역의 취향

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웹OS를 탑재한 TV는 전세계 2억 7000만 대에 달한다. 폴란드는 유럽 인구 5위 국가로, 스마트 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 내 LG채널 서비스 국가를 17개국으로 확장한 LG전자는 폴란드 진출을 발판 삼아 중·동부 유럽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LG채널은 폴란드에서 글로벌 뉴스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FAST 솔루션 기업 뉴아이디(NEW ID)사와 협력해 @K-MUSIC, NEW K FOOD 등 K-콘텐츠 전문 채널도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유럽과 북미는 물론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LG채널을 운영하며 실시간 방송, 영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현지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기선, 英 앤 공주와 조선·함정 협력논의

(HD현대 회장)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방문
상선·특수선 건조 역량 확인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영국 왕실의 앤 공주를 만나 영국의 조선·해양산업 재건과 함정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앤 공주와 남편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을 비롯해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과 주원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앤 공주 일행에게 HD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기술과 사업 경쟁력을 소개하고, 한국과 영국 간 조선·해양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영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앤 공주는 HD현대중공업의 상



영국 왕실의 앤 공주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기술 및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영국 앤 공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주원호 사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HD현대

선·특수선 건조 현장과 엔진 공장을 둘러보며 선박 건조 및 함정 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HD현대중공업과 롤스로이스는 지난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BMW, 전기차 라인업 보조금 평가서 '호평'

BMW그룹 코리아가 국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기차 운행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인정 받았다. BMW그룹 코리아는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다수 모델이 높은 구매 보조금을 적용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자의 전비와 1회 충전 주행 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효율성과 환경성, 충전 인프라 보급 기여도, 그리고 제조사의 A/S 서비스 네트워크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BMW '더 뉴 iX3'는 성능 보조금과 충전 속도 등에서 만점을 받아 국고 보조금 275만원이 책정됐으며, i4와 i5 등 주요 제품군도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네이버 별점’ 부활에 소상공인 우려… “악탈적 플랫폼 회기”

소공연 “대부분 장소에 별점 도입
트래픽 장사 혈안, 갑질행태 ‘분노’
악의적 의도 ‘별점테러’ 무방비 노출”
‘별점관리노하우’ 등 마케팅 포착

5년 만에 부활해 이달 9일부터 재개한 ‘네이버 별점’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악탈적 플랫폼으로의 회귀’라며 네이버를 강력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네이버 상에는 ‘별점 시대 생존 전략’ 등을 통해 잇속을 챙기려는 마케팅들이 판을 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장사가 안돼 앓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만 더욱 가뭄되고 있다는 우려다.

소공연은 14일 내놓은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네이버가 단순히 식당, 카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소’에 별점을 도입함에 따라 여타 온라인플랫폼과 비교할 수도 없는 현



네이버가 2021년에 중단한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대한 ‘별점’을 지난 9일부터 부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상점 밀집 골목 전경.

/김승호 기자

장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보다 트래픽 장사에 혈안이 돼 또다시 소상공인을 줄 세우기 하겠다는 네이버의 갑질행태에 연합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네이버는 평균 별점의 노출 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개별

소비자가 남기는 별점은 비공개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뒀다”며 “이는 결국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이용자의 ‘별점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무한 경쟁과 불합리한 ‘갑질’의 굴레로 밀어 넣는 처사”라고 혹평했다.

소공연은 이에 따라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 전면 도입 ▲악성 별점 테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구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상생 보호막 최우선 구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4년 12월 당시 법무처가 꾸렸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5개 중 앙부처는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해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는 정책대응반을 통해 악성 리뷰·댓글 피해, 노쇼 피해, 불법광고 피해,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관련 4대 피해’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게 확인되었다.

네이버 별점 부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이를 이용한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이버에는 ‘#별점관리노하우’ 등의 키워드로 소상공인들을 유인하려는 모습 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 지역에 있

는 마케팅업체는 ‘별점과 키워드 리뷰의 강력한 시너지를 노려라’면서 별점 맛집으로 세팅하는 생존 전략 3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별점)3점대 매장을 인수해 내가 받지도 않은 3점대를 다 끌고 간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고객이 별점 5점을 주려고 다섯번째 별을 클릭해도 조금만 왼쪽으로 클릭하면 4.5점으로 적용되고 수정도 안돼 별점이 낮아진다. 별점을 다시 부활시킨게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소공연 관계지는 “5년 동안 중단했던 별점을 부활하면서 네이버가 더욱 커진 영향력을 이용해 결국 트래픽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사가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별점에 울고 웃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다”면서 “연합회는 별점 부활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첫 나토 품질보증 인증 획득

‘AQAP-2110’ 인증 수여식 열어
구난전차, 교량전차 등 전차 계열 제품
유럽 중심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비롯한 전차 계열 제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품질보증 인증을 획득했다. 나토 회원국 방산사업 입찰에 요구되는 품질 요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나토 품질보증시스템(AQAP) 인증 수여식을 열고 ‘AQAP-2110’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AQAP-2110 인증을 받은 것은 현대로템이 처음이다. 국제 협력을 통해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공식 인증기관



신상범 기품원장(오른쪽),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지난 13일 현대로템 의왕 본사에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자격을 확보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처음으로 인증을 부여한 사례이기도 하다.

AQAP-2110은 나토 회원국의 방산물자 획득 과정에서 적용되는 품질보증 표준 규격으로 우리나라 국방품질경영시스

템(DQMS)과 유사한 체계다. 설계와 개발,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수출을 위한 핵심 인증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 대상은 K2 전차를 비롯해 구난전차,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현대로템의 전차 계열 제품이다. 회사는 향후 시장 수요에 맞춰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토는 전 세계 국방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이다. 이번 인증은 최근 나토 정상들이 국방비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토는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방위비 증액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PL보험·손해공제로 할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할인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중앙회 PL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중기중앙회, 5% 특별할인 시행
지자체 사업과 중복 혜택 가능
“경영 안정성, 제조혁신 강화 지원”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가입 방식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업체는 여기에 추가 5%의 특별할인을 받게 된다.

특히, 전국 13개 주요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사업’(납입 보험료의 10~30% 내 지원, 최대 100만 원 한도)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위험, 재산손해,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하게 5% 특별할인 보험료 혜택이 적용된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전무이사는 “이번 특별 할인 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이 후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오후 6시에 끝나는 창호 ‘원데이 시공”

LX하우시스 ‘LX Z:IN 창호 뷰프레임’
다중 챔버 설계로 우수한 단열성능

LX하우시스가 여름철 냉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고단열 창호 제품 ‘LX Z:IN 창호 뷰프레임’을 내세워 휴가기간을 활용한 창호 교체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14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뷰프레임’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뛰어난 단열 성능과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으로 기존 창호보다 더 넓은 뷰를 선사하고 하루만에 시공이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대표 창호 제품이다.

‘원데이 시공’은 오전 9시에 창호 교체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쯤 모든 작업이 끝난다. 하루 만에 공사를 빠르게 끝내고 소음과 먼지 등 공사로 인한 이웃 갈등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뷰프레임’은 창짝과 창틀 모두에 단열성능을 높이는 다중 챔버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단열성능을 확보한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중 챔버는 여러 겹의 옷을 입으면 그 사이 공간에 공기층이 형성돼 보온 효과가 커지듯이 창호의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틀·창짝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챔버)로 나눈 구조 기술이다.

여기에 LX하우시스는 7~8월 두 달간 전국 120곳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통해 창호 교체 수요를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LX하우시스 관계지는 “철거부터 설치까지 하루 만에 다 끝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데이 시공’ 제품들이 휴가철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며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다양한 관측행사 등을 앞세워 창호 교체 수요 잡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N32 모션베드’, 반얀트리 서울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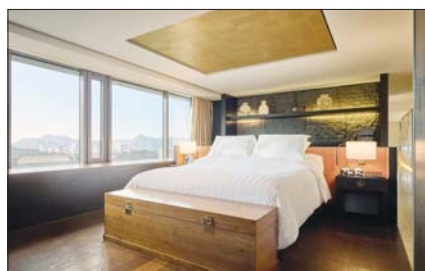
‘슬립 웰니스 스위트’ 패키지 선택

시몬스의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서울 중구에 있는 5성급 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입성했다.

14일 시몬스에 따르면 최근에 전통 침대 ‘N32 모션베드’를 반얀트리 서울에 납품했다. 국내 주요 특급호텔에 팝업 형태가 아닌 정식으로 모션베드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반얀트리 서울은 그랜드 프리미어 풀 스위트 객실에 N32 모션베드를 내세운 ‘슬립 웰니스(Sleep Wellness) 스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N32 모션베드는 5개 플레이트로 분절돼 사용자의 자세나 수면 환경에 따라 세밀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전통 침대다. 분절되는 면에 ‘안전 센서’를 부착해 끼임이 감지되면 안전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아이들이 기기 내부로 들어가는 것



‘N32 모션베드’가 설치된 반얀트리 서울 ‘그랜드 프리미어 풀 스위트’ 객실 전경.

을 방지하는 ‘스판 안전 가립천’도 설치해 탁월한 안전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블루투스 연결 기능과 A·C타입 충전 포트, 모션 저장 모드(메모리 기능) 등의 편의 요소도 갖춰 국내 모션베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얀트리 서울의 선택을 받았다.

N32 모션베드와 호환해 사용하는 ‘N32 폼 매트리스’는 물론 ‘윈즈밀러 오가닉 비건 필로우’도 함께 비치됐다. /김승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입자 정체에 AI 승부수… 통신3사, IPTV 혁신 속도낸다

KT, 지니TV로 생활형 AI 기능 확대
SKB,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
LGU+, 사전 장애 감지·대응 시스템

통신3사가 IPTV 서비스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유료방송 시장 경쟁 우위를 잡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체 유료 방송 시장에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IPTV 점유율 60% 안팎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조사 결과, 가입자 수는 2023년 하반기 기준 2100만명에서 2024년 2131만명, 2025년 2154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선방송(SO),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평균은 3615만명이다.

IPTV 사업자들은 정체된 유료시장에



SK브로드밴드가 지난 1일 지상파 채널을 더한 B 티비 맥스를 선보였다.

/SK브로드밴드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가 운영하는 지니TV의 경우 셋톱박스에 AI를 접목해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셋톱박스에 AI 에이전

트 기능을 더해 고객이 가전 작동, TV 화질 조정, 콘텐츠 검색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협력해 거대언어모델(LLM) 체계

를 탑재하면서 생활형 AI 기능을 고도화했다. 채널 변경 등 기본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에이닷을 활용해 'AI B 티비'를 운영한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주문형비디오(VOD)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준다. 시청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고 공동 사용자와 VOD를 공유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등 고객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셋톱박스와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700여 종의 데이터를 AI가 수집·분석하고 고객이 불편 접수를 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원격으로 제어한다.

유료 방송 시장에서 통신 3사가 고객

이탈을 방어하는 최대 경쟁력은 결합 상품에서 나온다. IPTV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록 고객들의 할인 체감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결합 수요 감소로 서비스 경쟁력이 과거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은 가족결합 할인 상품에서 신규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했다. LG유플러스도 가족결합 할인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 확대보다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청자 접근성이 높은 전송망 사업자 강점을 살리면서 OTT 콘텐츠와 실시간 방송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네카오 AI 패권 경쟁 발목잡는 '노사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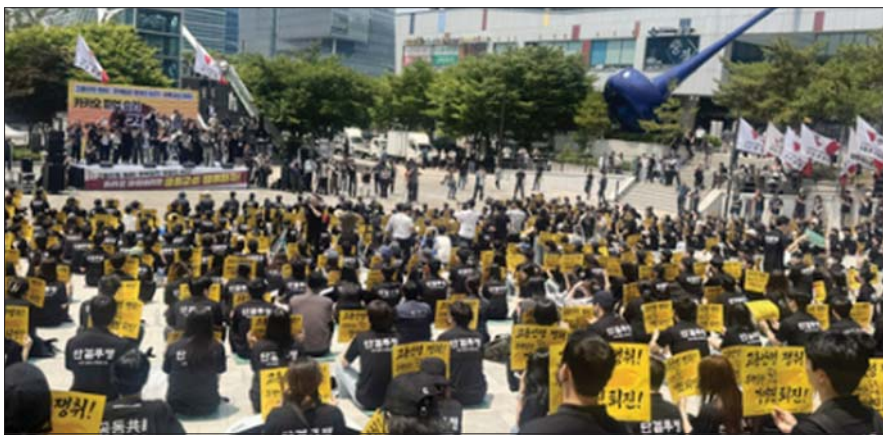
네이버, 계열사 통합교섭 추진
카카오, 점점 못찾고 파업 장기화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갈등 키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주도권 쥐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노조 리스크'라는 변수와 마주했다. 생성형 AI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서비스 출시 속도와 조직 실행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대 플랫폼 기업 모두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영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동조합은 계열사를 하나의 교섭 테이블로 묶는 '통합교섭'을 회사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안별로 진행해 온 임금·단체협상을 그룹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섭이 현실화되면 네이버 본사는 물론 주요 계열사까지 협상 대상이 된다. 노조는 그룹 차원의 인사·복지·근무환경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입장에서선 각 법인의 사업 구조와 경영 환경이 다른 만큼 협상 난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카카오는 이미 노사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은 올해 들어 성과보상 체계와 임금 인상, 조직 운영 등을 둘러싸고 회사와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로그아웃 데이'



지난달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카카오 노동조합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파업 절차까지 밟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사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올해를 AI 경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경쟁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서 실제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고 조직을 움직이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올해 AI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브리핑을 검색 전면에 확대 적용한 데 이어 AI탭, 쇼핑 AI 에이전트, 플레이스 AI 등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으며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 역시 AI 메신저 '카나나'를 중심으로 AI 사업 재편을 본격화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카카오톡 전반에 AI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AI 에이전트 서비스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AI 투자 확대와 함께 조직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AI 조직 신설과 재편, 개발 인력 확보,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노사 간 논의해야 할 의제도 이전보다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노사 협상이 장기화된다고 AI 연구개발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조직 운영에 투입해야 할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독파모 정예팀에 SK AX·테크노매트릭스 합류

AX 사례 발굴·제조 AI 전환 등 지원

SK텔레콤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정예팀 역량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독파모델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SK AX와 테크노매트릭스가 신규 파트너로 합류한다고 14일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정부가 AI 기술 주권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 사업으로 기업·대학 등이 연합해 컨소

시엄을 구성 중이다. 이번 신규 기업 합류로 독파모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SK AX는 정예팀에서 기업간거래(B2B) AX 사례를 발굴하고 실증을 추진한다. 또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회사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에이닷엑스(A.X)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을 지원해왔다.

테크노매트릭스는 제조 AI 전환과 운

영 최적화 등을 목표로 지원한다. 회사는 러닝머신 등 AI 모델 운영 체계 전문 기업으로 제조·금융·IT 등 산업 분야에서 모델링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SK텔레콤 정예팀은 컨소시엄 내부 협력을 4개 트랙으로 나눠 참여사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협력 분야는 모델·인프라, 선행연구, 데이터, 서비스 확산 등이다. 향후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KT, 공공 정보시스템 AI 전환 로드맵 마련

정보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T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공공 AI 인프라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이번 사업의 대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 시스템이다. 국가 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해 뼈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특히 KT는 국가 공공 AI 인프라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설계할 계획이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기준과 데이터 센터 운영 방향, 재해복구(DR)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

행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3대 핵심 과업을 수행한다. 먼저 정보시스템(693개)을 재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이전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공공데이터센터 운영 대안을 마련하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한다. 목표 기한은 2027년 3월이다.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한 구조적인 설계도 담당한다. 차세대 AI 인프라 기준 수립, 기존 시스템 현황 분석, 보안체계 적용 등 각 분야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KT는 국가망보안체계(N2SF) 등급과 시스템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내 IT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공공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LGU+, 고객센터 AI 솔루션 기술 공개

AI 에이전트·상담어드바이저 등 소개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전환(AI) 컨퍼런스 'AXIS 2026'에서 AI 기반 고객센터의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소개할 AI 기반 고객센터(AICC) 솔루션의 핵심 기술은 AI 오케스트레이션 엔진(AOE)이다. 고객의 발화와 맥락을 분석해 적합한 AI 에이전트와 지식, 기능을 연계하고 상담 과정에 맞춰 각 기능의 작동을 제어한다.

특히 에이전트 AI 상담봇은 복합적인 문의에 대한 내용을 조화하고 판단, 실행, 안내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AI가 로밍 이용 의도와 여행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 이후 가입 절차부터 처리 결과까지 고객에게 안내한다.

AI 에이전트를 생성·검증하는 '텍스트 투 에이전트' 기능도 소개한다. 운영자가 상담 업무와 요구사항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시나리오와 업무 절차,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결



AXIS 2026 행사장 내 LG유플러스 전시 부스.

/LG유플러스

해 상담 에이전트를 생성한다.

AI 에이전트를 검증하는 '에이전트 이밸류에이터'도 있다. 상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준수 여부와 상담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상담 흐름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

AI 상담 어드바이저는 고객과 상담사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한 상담 지식을 추천한다. 상담 요약과 상담 코드 추천, 후처리 자동화 등을 통해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 상담 품질을 자동 분석해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는 '오토 QA'를 통해 상담사 코칭을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과매도 구간이라는데”… 손실 본 개미들 ‘벼락거지’ 공포

반도체점론·중동리스크에 급등락
기관 매도에 코스피 6800선 밀려
개인 하루 평균 순매수 4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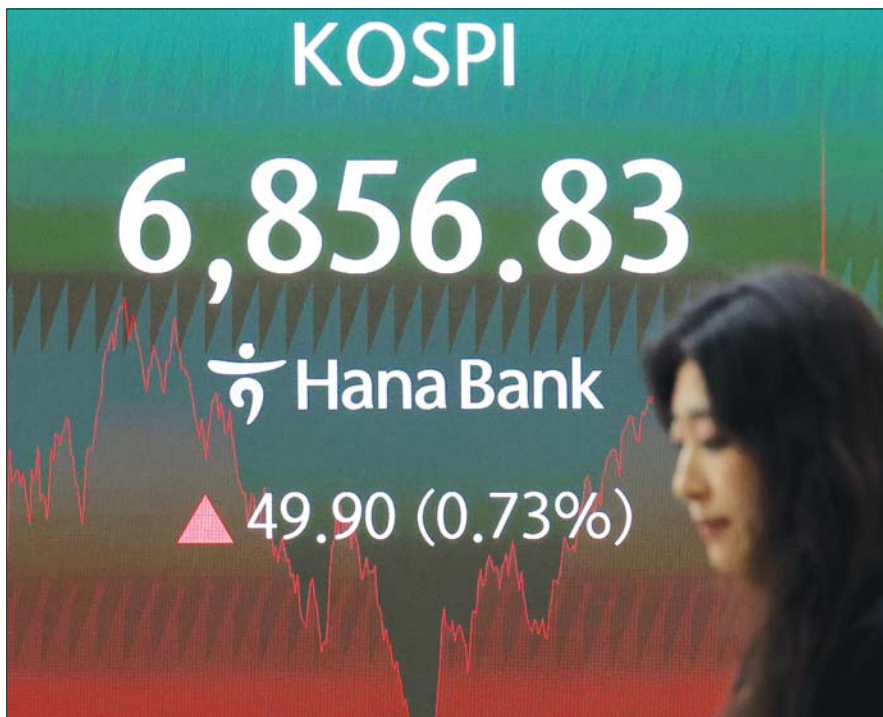
PER 금융위기 수준 저가매수 기대
“완전히 바닥권 도달” 반등여력 충분

3년차 직장인 김모(28)씨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지난 13일 큰 손해를 봤다. “하락은 기회”라며 신용 용자를 내 같은 상품을 더 사들였다. 김씨는 “계속 주식장만 보니 삶이 주객전도된 느낌”이라면서도 “기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40대 직장인 하 모씨는 “7월이 시작하자마자 검은 목요일(2일)에 이어 또다시 검은 월요일(13일)까지 투자금 수천만원이 이를 새 날아갔다”며 “전쟁은 중동에서 터졌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뒤 하락) 우려에 다시 불 붙은 중동 전쟁까지 겹쳐 짧은 반등과 급락이 몇 주 동안 반복되면서다. 지갑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 할까? 전문가들은 과매도 구간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분산투자를 강조한다.

◆반복되는 악재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49,900인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90포인트(0.73%) 상승한 6856.8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38포인트(1.92%) 하락한 783.98로 마감했다.

/뉴시스

트(0.73%) 오른 6856.83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점 우려가 커지고,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연 샘슨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금의 랠리는 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통제하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Capex)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단약 반도체에 대한 지출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중동 리스크도 악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휴전 중 교전이 재개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계 태풍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바짝 마른 짚더미’처럼 민감해진 시장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 구조가 주가가 오를 때 현물을 추가 매수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비중 조절을 위해 현물을 더 팔게 된다”며 “개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음에도 기관 매도가 더 크게 나타난 배경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장폐지라는 ‘조강수’를 비롯해 투자자 교육 강화,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동시에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나 종목 허용 범위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 아직도 싸다

극심한 변동성에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열기가 식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14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약 9100억원이다. 지난 달 하루 평균 순매수액인 2조191억원보다 54.91% 넘게 감소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의 ‘실탄’이 바닥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을 109조116억원으로 집계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4일(139조6947억원)보다 30조원 넘게 줄었다. ‘빚투’ 자금도 감소세다. 같은 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7886억원으로 최근 한 달 사이 2조원 넘게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6.8배로 통계적 과매도 구간인 ‘-2표준편차’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5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원은 “현재 PER 6.8배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넘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조정”이라며 “과거 PER -2표준편차 이하 구간에서 코스피 평균 투자 성과는 4주 이후 2.3%, 13주 6.6%, 26주 4.1%, 52주 11.2% 등을 기록하며 전 구간에서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도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이어 코스피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기준환적 이익 구조 탓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오랫동안 저평가돼 왔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스피 급락을 예견했던 하나증권도 이번 조정을 과도한 낙폭으로 평가하며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 “현재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바닥권(저점)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2027년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 추정치 946조원에 2010년 이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9.96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이 1만1450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 물가·금리 등 거시 변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 물가 안정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8~9월 미국 물가지표가 피크아웃을 확인해 준다면 4분기에는 금리 하락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산타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 급락, ETF 강제매도 탕”

골드만삭스, 레버리지 ETF 악순환
기관 순매도 62% 청산 물량으로 추산
코스피 6800선 1차 지지선으로 제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최근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계적 매도를 지목했다. 이번 조정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유동성에 따른 포지션 청산의 성격이 강하며 메모리 반도체와 기술주에 대해서는 선별적 매수 전략을 제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주요 기술적 지지선을 시험하다’ 보고서에서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디레버리징(강제매도)이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부 2배 레버리지 ETF가 하루 동안 30% 넘게 하락하면서 운용사들이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산을 추가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다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전날 국내 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관련 청산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외국인 순매도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

등 패시브 자금에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11억8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수 급락에도 기관투자자의 블록딜(대량매매)은 많지 않았고 일부 추세추종형 헤지펀드에서만 선별적인 매도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스템 리스크와 과열 마케팅에 우려를 나타낸 점도 언급했다. 향후 규제는 상품 출시를 제한하기보다는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1차 지지선으로 제시했다. 6800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 지지선은 6500선이며, 이마저 이탈하면 6100~60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의 하루 변동폭이 통상적인 표준편차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6100~6000선이 보다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기계적 매도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 높은 스와프 금융 비용 등이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韓 저평가 매력 여전… AI·반도체 편중 경고

로베코운용, 아시아 재평가 여지 주목
조선·전력기기 등 한국 강점 부각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저평가 매력은 여전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만 쏠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 조슈아 크랩 로베코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기업 실적과 이익 수준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보다 아시아 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욱 높다고 평가했다.

크랩 대표는 “미국은 추가적인 리레이팅(재평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아시아는 여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며 “지난 수년간 기업 실적은 꾸준히 개선됐음에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져 현재는 어닝 대비 매우 저평가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인 데다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전력기기, 로보틱스 등 AI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경쟁력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도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왼쪽부터) 조슈아 크랩 로베코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와 크리스 버쿠워 로베코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2026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크랩 대표는 “1년 반 전만 해도 한국 시장은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며 “AI에 대한 관심이 다소 완화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강점은 반도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과 로보틱스,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와 연결된 산업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로베코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시장 편중도(concentration)’를 지목했다.

크랩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은 ‘매그니피센트7(M7)’ 등 소수의 AI·빅테크 기업으로 크게 편중돼 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아시아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하은 기자

삼성자산운용 주도산업 집중 투자 커버드콜 ETF 상장

월말 분배금·초과성과 추구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도 산업과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월 분배금과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국내 커버드콜 시장의 대표 상품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진화형 상품이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최근 1년 동안 연 17%(ETF체크 기준) 수준의 높은 월 분배금을 매월 중순에 지급하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3조1033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신규 상장하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는 기존 상품의 운용방식을 활용하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해당 ETF는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에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실제로 2025년 이후 코스피 성과를 상회한 산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사·자본재, 기계 등 4개 섹터에 불과하며, 시가총액 상위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지수 내 과반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30년 노후 부산 신평장림산단 친환경 에너지 산단 ‘탈바꿈’

남부발전, 8개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2029년까지 태양광·ESS 등 구축
운영 수익, 재생에너지 확대 등 활용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의 대표적 노후 산업단지인 신평장림산업단지를 친환경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을 맡는다.

남부발전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하고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신평장림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노하우를 보유한 그랜드션 기술단, 협성임프, 세광, 한빛이노텍을 비롯해, ESS 구축과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현 기술을 보유한 누리플렉스, 부산시 산하 부산테크노파크, 선영파트너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행 역량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0년 조성 이후 3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부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등을 구축해 탄소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 일대 모습

/남부발전

중립산단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규모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방비 30억원, 컨소시엄 투자비 90억원 등 총 320억원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장 지붕 및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구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신기술 입증 ▲입주기업 에너지 진단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지능형 전력망 기반 전력 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을 산업단지 내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에 운영 수익을 직접 나누는 햇빛소득 도입, 탄소배출 저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부산 신평장림산단 내 분산에너지원 보급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전북 지역에 AI ESS 구축 동서발전, 전력망 안정화

기후부 ‘AI활용 ESS 구축사업’ 선정
한전KPS·신성이엔지와 컨소시엄

태양광 발전설비 급증으로 전력망 접속 대기 정체가 심각한 전북 지역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구축된다.

한국동서발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가 집중된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고, AI 기반 통합발전소(VPP)로 운영해 배전망 혼잡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남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동서발전은 한전KPS, 신성이엔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핵심 설비를 모두 국산 제품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3개 배전선로에 총 60MWh 규모의 ESS를 구축하고, 약 17MW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전력망에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운영은 통합발전소 운영 역량을 갖춘 동서발전이 맡아 향후 20년간 이끈다. 동서발전은 자체 AI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망과 태양광 발전 상황에 맞춰 배터리 충·방전 시점을 실시간 조절해 계통 안정성과 설비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배전망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번 모델은 성과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으로의 확산과 국내 ESS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동서발전은 통합발전소(VPP)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DR)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왔다”며 “태양광 포화지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른쪽 두번째부터)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2026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균형발전 힘 신는다

(농식품부 장관)

청양군 성공모델 전국 확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전국 각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정책사업의 명문화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공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또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 생활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내 한 고령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주택 내부 수리작업도 거들었다.

그는 “농촌마을에 혼자 거주 중인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간단한 전등 교체조차

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청양군의 불편해소 서비스는)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좋은 사례”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양방문을 끝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모두 마쳤다.

청양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았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도 개선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매년 감소해 오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3.3%) 늘면서 3만 명 선을 회복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다시 돌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TR, 베트남 최대 인증기관과 협력 강화

‘비나컨트롤’과 업무협약 체결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체계 구축

국내 산업기계 및 설비 제조기업들의 까다로운 베트남 수출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정병찬 원장 직무대행이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시험인증 기관인 비나컨트롤(Vinacontrol) 판반형(Phan Van Hung) 부사장과 산업설비, 보일러, 승강기 등 주요 산업 설비 검사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나컨트롤은 1957년 베트남 최초로 설립된 검사 및 시험 인증 기관으로, 현재 산업기계, 플랜트, 전기설비 및 탄소중립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수입 산업 설비에 대해 부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 전 또는 현지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승강기, 방폭 전기기기 등은 관련 부처와 용도에 따라 인허가 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어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은 현지 기관과의 협력 및 규제 대응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베트남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검사를 비롯해 시험 인증 기술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나아



정병찬 KTR 원장 직무대행(왼쪽)과 베트남 비나컨트롤 판반형 부사장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가 수출기업 대상 공동 세미나, 탄소중립 검증 협력 등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KTR은 이미 지난 2024년 베트남 하노이에 시험인증 독립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산업용 기계, 전기용품, 이차전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시험서비스와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분야의 등록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거점 역량을 다져왔다.

KTR 정병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 수출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지 검사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처별, 분야별로 다양한 베트남 수출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I가 바꾸는 해양산업…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

해수부,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해양산업의 미래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5~16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포럼은 해양분야 전문가와 기업인이 한데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AI 시대,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해운·물류, 스마트항만, 해양관광 등 주요 분야별 6개 세션과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운·물류(AI와 국제 네트워크) ▲해양관광(AI 시대 해양관광) ▲스마트 항만(실물 AI와 스마트항만의 미래) ▲해양환경과 에너지(해양에너지와 AI) 등 4개 세션이 열린다. 기조강연자로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와 주시현 현대차·기아 상무가 나선다.

16일에는 ▲AI 기반의 해양도시(AI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도시) ▲인천의 AI 산업에 대한 특별세션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에서는 해양산업 현장에 활용될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항만 감시·정찰용 보행 로봇과 화물 분류·적재용 팔레타이징 로봇 등 산업용 로봇을 비롯해 바리스타·캐리커처 로봇 등 일상 속 다양한 로봇 시연이 펼쳐진다. 대학(원)생 AI 경진대회와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인천국제해양포럼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해양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크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울산항 9개 단체 “항만공사 통합, 자율성 압살 독단적 정책”

“해운항만 산업 본질적 특성 무시
개별 항만의 건전재정 구조 유지
통합 시 관리비 절감 등 이득 미미”

정부가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공사(PA)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울산항 관련 9개 단체가 “항만의 자율성을 압살하는 독단적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항발전협의회,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 한국해운조합 울산지부, 울산항도선사회,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 울산항업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등 9개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PA) 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통합 추진은 해운항만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 수출입 전초기지인 항만의 자율성을 압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항 전경.

이어 “항만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제조 기반 및 지역 사회의 생존과 맞물려 있는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라며 “국가물동량의 대다수를 처리하는 핵심 기반시설을 단일 조직으로 획일화하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들며 독립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들

은 “세계 주요국들 역시 개별 항만이 지닌 물류 경쟁력과 배후산업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별로 독자적인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만이 고객에게 선택받는 기준은 거대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서비스 수준과 비용 경쟁력,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각 항만

공사는 이미 개별 항만의 확고한 물동량과 항만시설이용료, 임대 수입 등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단순 관리비 절감이나 행정 편의적 이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비대화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지역 갈등 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 조직이 본부 산하의 하부 지원 형태로 축소될 경우 지역 내 고용 규모가 직격탄을 맞고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울산항 9개 단체는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시도는 실리적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국가 균형 발전의 퇴행과 지역 산업 지원 기능 마비라는 치명적인 국익 손실을 야기하는 자멸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독단적인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별 항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구미시

오뚜기라면 2000억 투자 유치

구미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북도, 오뚜기라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이사,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뚜기라면(주)는 구미국가2산업단지 옥계2공단로 179-15 일원 옛 효성티앤에스 부지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해외 수출 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2029년까지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완도군

7억 투입해 양식어장 정화

완도군은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양식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7억원을 투입해 완도읍 장좌리, 대야1리, 군외면 달도리, 청산면 모동리 어촌계 양식 어장 632ha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어촌계 면허 유효기간, 양식 어장의 오염 심화 정도, 어장 재배치 여부, 주변 어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주시

만남지원사업 첫 성혼 탄생

경주시가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에 이른 첫 성혼 커플에게 결혼축하금을 전달했다.

경주시는 13일 시장실에서 만남지원사업 첫 성혼 사례인 김진수 씨와 이혜진 씨 예비부부에게 경주페이 200만원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열린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오는 9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만남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한 커플에게 1커플당 200만원 상당의 경주페이를 지원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울산시

폭염·고열 실증시설 건립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폭염과 고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실증 시설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울산테크노파크 등 4개 참여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2억원이다.

시설은 미포국가산업단지내 ‘울산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에 조성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中 시안서 대규모 관광 로드쇼 ‘영주365시장’ 디지털 마케팅 기반 강화

‘부산 브랜드 스토어 인 시안’ 2000여명 방문, B2B 상담도

부산관광공사가 중국 서북권 거점도시 시안(西安)에서 대규모 관광 로드쇼를 열고 내륙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시안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조이시티(Joy City)’에서 ‘부산 브랜드 스토어 인(in) 시안’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안은 에어부산이 부산과 직항으로 연결하고 있는 중국 내륙 도시로, 중국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대도시를 가리키는 ‘신(新)1선 도시’로 분류된다.

행사의 부제는 ‘항항부산’. 중국 MZ세대가 온라인에서 쓰는 표현으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부산’이라는 뜻이다. 주말 유동 인구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조이시티에 부산의 바다와 랜드마크를 형상화한 팝업 스토어를 꾸려 이틀간 오픈

라인 방문객 2000여 명을 끌어모았다.

이와 함께 해양 체험, 뷰티 시연, 아로마 진단, 삼진어묵 시식, K팝 댄스 공연 등으로 구성했고, 샤오홍슈와 웨이보 등 현지 SNS 채널과 인플루언서 10명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도 병행했다.

10일에는 별도로 B2B 상담회를 열어 에어부산, 씨트립, 유투어(U-TOUR) 등 현지 항공사와 여행사,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관계자 50여 명과 부산 관광업계가 교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을 통해 부산발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직항 노선을 대폭 늘렸다.

이정실 공사 사장은 “시안의 방한 수요와 부산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이번 로드쇼를 통해 중국 내륙 시장에 부산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카카오 디지털 지원 사업 선정

영주365시장이 카카오의 디지털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영주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연계해 브랜드 가치와 고객 소통을 함께 높이며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시와 영주365시장(선비골전통시장·골목시장) 상인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카카오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단골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카카오 비즈니스 도구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고객 소통과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시장에는 디지털 전문강사의 맞춤



영주365시장은 디지털 마케팅 기반 강화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통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형 현장 교육과 카카오톡 채널 홍보 지원, 광고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수 있는 300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가 제공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 6월 경북지식재산센터의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선정에 이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영주365시장은 공동브랜드 구축과 디지털 마케팅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하며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도, 우수 브랜드 쌀 5개 선정

진주드림 참햇쌀 연호진미 ‘대상’

경상남도가 ‘2026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진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진주드림 참햇쌀 연호진미’ (사진)가 차지했다. 연호진미는 농촌진흥청이 2009년 육성한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기와 식감이 뛰어난 경남 주력 품종이다.

최우수상은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밥맛이 거창합니다’, 우수상은 ▲새고성농협쌀조합 ‘생명향결실’ ▲고성거제통영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소가야 옥천쌀’ ▲해미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가아뜰’이 받았다.

평가는 품질 관리가 어려운 혼합미를



를 직접 구입해 외부 기관에 맡기는 4단계 검증 방식을 적용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완전립 비율 등 14개 항목 품위 평가, 품종검정 지정기관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혼입물 확인, 한국식품연구원의 단백질 함량 분석과 전문 패널 식미(食味) 평가를 거친 뒤 계약재배 판매 실적 등 브랜드 관리 실태까지 종합 심사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제외하고 단일품종 브랜드만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객관성을 위해 시중 판매 중인 쌀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구축

경북도와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내달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가 진행됐다.

이 철도 사업은 2019년 대구와 경북의 공동 건의를 시작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광역철도 선도시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이날 종합평가를 받았다.

이 철도는 경부선(서대구역)~통합신공항~중앙선(의성역)을 연결하는 70.1km(신설 64.6km, 공용 5.5km)의 길이로 사업비는 2조485억원(예타신청 기준)이 들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연결해 대구 경북을 1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고 2024년 말 개통한 대경선과 연결돼 구미를 비롯한 내륙 첨단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경북도와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구 경북 6개 지자체장도 지난 2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유가·물류비 불안에 GMO 규제까지… 식품업계 ‘산 넘어 산’

(유전자변형식품)

호르무즈 봉쇄 우려에 원가 압박
포장재·에너지·운송비 상승 비상

오뚜기·롯데칠성 잇단 가격 인상
연말부터 GMO 표시 대상 확대
라벨 교체·원료 조달 비용 가중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원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 조치까지 겹치며 식품기업들은 대내외 악재가 겹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과 미국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 재개로 중동 정세가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통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상승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식품 제조업은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음료용 페트병이나 식품 포장재 필



Chat GPT로 생성한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 조치까지 겹치며 식품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을 담은 이미지.

름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티를 기반으로 생산될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과 제품 운송비 역시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미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6년 2분기 식

품산업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구입가격지수는 133.9로 전분기 대비 13.4포인트 급등한 반면, 출고가격지수는 103.8로 2.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체 흡수해 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누적된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식품 기업들은 연쇄적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오뚜기는 오는 16일부터 카레류(6.1%), 케첩류(6.1%), 당면류(10.0%), 후추류(17.0%) 등 4개 유형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일제히 인상한다. 대표 제품인 ‘3일숙성카레 약간매운맛(80g)’은 3200원에서 3680원으로, ‘순후추(50g)’는 4850원에서 5380원으로 오른다.

오뚜기 측은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 등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 불가피하게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도 칠성사이다와 펄스콜라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으며, 외식업계에서도 다보코리아(평균 약 11%)와 롯데GRS(평균 2.9%) 등이 가격을 올렸다. 이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웃돌았다.

대외 변수로 신음하는 식품업계에 새로운 규제 부담도 얹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 고시에 따라 올해 말부터 GMO 표시 기준이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된 것.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성분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하되만 하면’ 무조건 제품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당장 올해 12월 31일부터 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간장류 전체가 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내년 말부터는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와 대두유·마가린 등 식용유지류로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업계는 원료 사용 내역을 전면 재점검하고 대대적인 라벨 및 포장재 교체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따른 디자인, 인쇄 발주, 물류 일정 등에 차질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Non-GMO(비유전자변형) 원료를 확보하려 해도 가격이 비싸고 기후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제조 원가가 추가 상승할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환율과 물류비 상승 압박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까다로워진 GMO 규제 대응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이후 식품업계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블루보틀, 캔·인스턴트로 ‘온더고’ 공략

매장 밖 간편 소비 수요 겨냥
콜드브루·스틱 제품군 확대
RTD 앞세워 소비 접점 다변화

국내 커피 시장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더고(On-the-go)’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커피 브랜드들이 매장 밖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블루보틀도 RTD(Ready To Drink)와 인스턴트 제품군을 앞세워 소비 접점 확대에 나섰다.

블루보틀 커피 코리아는 콜드브루 캔과 크래프트 인스턴트 커피 등 매장 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군을 운영하며 온더고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콜드브루 캔은 커피와 물만 사용해 추



블루보틀은 크래프트 인스턴트 커피 볼렌트 놀라. /블루보틀

출한 RTD 제품으로 ‘블드’와 ‘브라이트’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휴대가 간편한 캔 형태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깨끗한 물과 커피만을 사용해 오랜 시간 브루잉하고, 식품 첨가물 없이 정교한 로스팅과 추출 과정을 거쳐 블루보틀 콜드브루 특유의 깊고 깔끔한 풍미를 담았다.

크래프트 인스턴트커피는 스페셜티 원두를 동결건조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이다. 스틱 형태의 싱글 서브 제품으로도 출시돼 물이나 우유를 더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

블루보틀은 뉴올리언스 스타일 커피를 재해석한 ‘놀라(NOLA)’도 인스턴트 커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크 로스팅 커피와 볶은 차커리를 조합한 제품으로 우유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288명 한정 ‘김창수 위스키 연꽃’ 나온다

롯데마트·보틀병커 단독 판매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 진행

롯데마트가 오는 16일 ‘김창수 위스키 연꽃 50도(700ml)’를 단독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국내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김창수 위스키와 협업해 선보이는 한정 상품으로, 한국의 24절기에서 착안한 ‘계절꽃 시리즈’의 여름 에디션이다. 한국의 사계절을 거치며 숙성되는 K-위스키의 특징을 담았으며, 롯데마트와 보틀병커에서만 판매된다.

제품 라벨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연꽃 디자인을 적용했다. 단일 오크통에서 숙성한 원액을 희석 없이 병입했으며, 페드로 히메네즈(PX) 셰리 캐스크에서 첫 숙성을 거쳐 달콤한 향과 과일의 산뜻한 풍미, 생강의 알싸한 맛, 고소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총 288명 한정 생산되며,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판매한다. 보틀병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한 뒤 전국 보틀병커 매장에서 수령



지난 7월 13일(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보틀병커 잠실점에서 ‘김창수 위스키 연꽃 50도’를 홍보하는 유승연(왼쪽) 보틀병커팀 MD, 박정민 음료주류팀 MD의 모습. /롯데쇼핑

할 수 있으며, 롯데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랑그로서리 구리점과 월드타워점을 비롯한 롯데마트 68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4분기 ‘계절꽃 시리즈’ 후속 에디션도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증류소와의 협업을 확대해 한정판 상품을 지속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의료 마이데이터로 맞춤 영양관리

현대그린푸드, 식품기업 최초 참여
연내 ‘그리팅 케어 플러스’ 선보

급식과 케어푸드사업으로 축적한 영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기업들의 헬스케어 사업이 고도화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정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현대그린푸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의료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식품기업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행정·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지정된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 분야에서는 건

강검진 결과와 진료·복약 정보 등을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와 자사가 보유한 식품 영양 데이터를 결합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서비스는 가칭 ‘그리팅 케어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며, 건강검진 결과와 질병·복약 정보, 식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별 영양 리포트와 식단, 운동 방법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단계급식과 케어푸드 사업을 통해 축적한 약 35만개의 식음료·건강 관련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건강 상태 변화나 이상 징후를 보호자나 지자체 등에 알리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켈리’

출시 4주년 맞아

올몰트 패키지 개편

하이트진로가 맥주 브랜드 ‘켈리(Kelly)’의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며 프리미엄 맥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켈리 출시 4주년을 맞아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켈리의 핵심 특징인 ‘올몰트(ALL MALT)’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패키지는 제품 전면에 ‘ALL MALT’ 문구를 배치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색감과 브랜드 로고도 일부 변경해 통일성을 강화했다. 켈리는 덴마크산 맥아 100%를 사용한 올몰트 맥주로 2023년 출시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올몰트 맥주라는 제품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켈리는 출시 이후 36일 만에 판매량 100만 상자를 돌파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혈당 관리까지 챙긴 저당 그레놀라 선택

오리온, ‘오!그레놀라 저당 카카오’

건강 관리와 저당 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리온이 가능성을 강화한 그레놀라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리얼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오리온은 식사대용식 브랜드 ‘마켓오네이저’의 신제품 ‘오!그레놀라 저당 카카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한 기능성 표시식품이

다. 당 함량은 1회 섭취량(30g) 기준 1g대로 낮췄다.

콘플레이크 대신 국산 쌀과 통밀, 귀리 등 통곡물을 사용했으며 카카오를 더해 풍미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리온은 2018년 마켓오네이저 ‘오!그레놀라’를 출시한 이후 저당, 고식이섬유 등 건강 콘셉트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오!그레놀라 제품은 저당 통보리, 오트 통넛트 등을 포함해 총 9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한 번 주사로 연골 재생”… K-세포치료제 잇단 출격

바이오솔루션 ‘스페로큐어’ 임상 승인
메디포스트 ‘카티스텀’ 상업화 속도
엘앤씨바이오, 신의료기술 본평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퇴행성 골관절염 시장에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질환근본치료제(DMOA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섰다.

14일 국내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솔루션은 지난 13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스페로큐어’ 국내 임상1/2a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 지난해 11월 해당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약 8개월 만이다.

스페로큐어는 수술이나 절개 없이 무릎 관절강에 단 1회 주사하는 세포치료제다. 동종 소아 늑골골 유래 연골세포를 조직화해 3차원 미세 구형으로 구현했다. 무릎 관절 속에서 장기 생존하며 치료 물질을 꾸준히 방출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항염 뿐 아니라 연골 파괴 방지 등 연골 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비임상에서는 동물 모델을 통해 염증 반응 및 연골분해 억제, 혈관생성 억제,



‘스페로큐어’

/바이오솔루션

연골기질 형성 등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임상에는 K&L 등급 2 또는 3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상 1상에서 안전성, 최대내약용량 등을 평가하고 2a상에서는 위약군과 비교 평가한다.

바이오솔루션은 기존 자가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동종 세포치료제 ‘카티로이드’ 등에 이어 주사용 세포치료제 ‘스페로큐어’까지 확보해 골관절염 전 주기 파이프라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첨단 재생바이오법을 통한 임상연구 및 유사치료 제도를 활용해 심의를 거치면, 품목허가에 앞서 환자 치료 기회와 일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물질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는 “스페로큐어는 골관절염 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스페로큐어의 국내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임상 추진 및 사업개발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세포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메디포스트는 이달 8일 미국에서 카티스텀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을 완료하는 등 글로벌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티스텀은 메디포스트의 제대혈 유래 동종 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다. 이미 국내에서는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상용화됐다.

아울러 미국 임상3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단일 임상’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어 신약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최소 2개의 독립적인 임상3상을 준비해야 하는 미국 FDA 신약허가 신청과 차별화됐다.

한국, 일본 등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뒷받침된 성과다. 카티스텀은 국내 투약 후 3년 이상 경과한 환자 약 560명에 대한 실사용근거(RWE)를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에서도 임상3상을 종료했다. 올해

말 일본 품목허가 신청을 거쳐 오는 2027년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앤씨바이오의 ‘메가카티’는 국내 비급여 시장에 안착해 제도적 최종 관문을 밟고 있다.

메가카티는 엘앤씨바이오가 세계 최초로 인체유래 동종 연골을 사용해 개발한 의료기기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 등에 쓰인다.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에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으로 지정돼 처방되고 있다. 올해 9월 30일로 3년 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엘앤씨바이오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본평가 통과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사용 연령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엘앤씨바이오 측은 “그동안 추가 임상 4건을 병행하는 등 후속 임상을 확대해 왔다”며 “메가카티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원피스 추천해줘”… LF몰, AI 쇼핑 혁신

생성형 AI 기반 쇼핑 서비스 도입
향후 이미지 검색·AI 코디 추천

L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생성형 AI 기반 쇼핑 서비스 ‘LF 스타일북’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LF 스타일북은 자연어 기반 쇼핑 서비스로, LF몰 검색창 아래 ‘스타일북’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키워드 검색과 달리 이용자가 대화하듯 원하는 상품을 설명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도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요즘 날씨에 입기 좋은 시원한 원피스 추천해줘”, “헤지스 신상 셔츠 보여줘”와 같은 질문에 맞춰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 현재 날씨와 LF몰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이용자의 최근 클릭 상품 등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같은 질문이



LF몰 AI 쇼핑 에이전트 ‘LF 스타일북’.

/LF

라도 시점과 이용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LF 스타일북은 고객 데이터 보안을 위해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자체 서버에 구축·운영하며,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AI 환경을 적용했다. 여기

에 LF몰이 축적한 패션 관련 데이터와 상품 운영 정보를 반영해 추천 정확도를 높였다.

또 고객의 질문을 의미 단위로 이해하는 벡터 검색(Vector Search) 기술을 LLM과 결합해 키워드로 표현하기 어려운 요청도 맥락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한다. 추천 과정에서는 소재와 핏, 스타일링 포인트 등 상품 특징도 함께 안내한다.

LF몰은 AI 기반 쇼핑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선보인 ‘AI 코디 추천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는 AI 활용 범위를 검색과 탐색으로 넓혔다. 향후에는 이미지 기반 상품 검색과 AI 코디 추천, 이미지 유사 상품 추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LF는 올해 1월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한 ‘LF AI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했으며, LF몰에서는 ChatGPT 내 ‘LF몰’ 앱과 AI 리뷰 초안 작성 기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면세점, 휴가철 대규모 할인전 연다

온·오프라인 경품 행사도 진행

롯데면세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오프라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시즌 행사 ‘롯데면세’를 운영한다. 시내점에서는 토리버치, 지미추 등 패션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하며, 화장품·향수, 주얼리·워치, 아이웨어, 전자기기 등 행사 참여 브랜드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오프라인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제주점에서는 패션 및 시계·주얼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부산점에서는 전 카테고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LDF PAY를 지급한다. 주말에는 사용 카드에 따라 LDF PAY를 추가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하며, 네이버페이와 롯데·우리·하나·삼성카드 등 결제 수단별 추가 혜택도 운영한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여름 쇼핑 행사 ‘면세일’을 진행한다. 랑콤, 바이레도, 질스튜어트, 페레가모, 다이슨, LG프리얼 등 상품을 할인 판매하며, 하루 두 차례 선착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브랜드 특가전과 브랜드별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 단독 상품,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에서는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시내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시그니얼 서울 속 박권, 레이벤 메타 스마트 선글라스, 라세느 식사권 등을 증정한다. 월드타워점에서는 제주항공 국제선 왕복항공권과 고베 왕복항공권을 추가 경품으로 제공한다.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카카오페이와 함께 해외 호텔 숙박권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셀트리온, 수출입 안전관리 AAA 등급 갱신

제약·바이오 업계 유일

셀트리온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을 국가 공인 제도를 통해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갱신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수출과 수입 2개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기업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해 AEO 인증을 부여한다. 현재 관세청 AEO 인증 기업 773개 중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한 곳은 20개 기업

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지난 2021년 업계 최초 AAA 등급 획득에 이어 이번 갱신심사 통과로 오는 2030년까지 최고 등급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공급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 개선해 온 성과다.

셀트리온은 해외 물류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감면, 통관 적법성 등을 사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자율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수출입 신고 서류 제출, 물류 검사 100% 면제(무역위선별 제외) 등 관세행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버들장터’ 31일까지 장마 기획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유한양행이 계절별 고객 수요 잡기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오는 31일까지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장마 기획전’을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장마철 곰팡이 및 세균 관리 등을 위한 제품에 할인 등 혜택을 적용한다. 두피와 바디를 관리하는 K뷰티 브랜드 ‘더마푸라민’부터 모기와 벌레를 잡아주는 ‘해피홈 살충제’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고객 참여형 행사도 열린다. 비 오는 날 한정으로 쿠폰을 발급하는 등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임직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사내 안전문화 강조

광동제약이 임직원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고양하며 사내 안전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활 속 응급처치부터 심폐소생술(CPR)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을 다뤘다. 심장지, 기도폐쇄, 낙상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 가능한 실습이 이어졌다. 약 770명의 본사 및 전국 지점 임직원이 순차적으로 참여했고 중앙응급처치교육원이 주관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초



광동제약 임직원들이 광동천타워 교육장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 교육에 참여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임직원들이 실제로 침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and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OTTERIATM basil mozzarella tomato pineapple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나폴리 맛피아 VS 삐딱한 천재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보-광주회생법원, 中企 재도약·기술거래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광주회생법원과 지난 13일 광주 동구 광주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파산기업 부활을 위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성주 광주 회생법원장, 박준선 기보 전무이사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심전도 AI 검사' 실시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심전도 AI(인공지능) 기반 심장질환 조기 진단프로그램을 택배기사 대상 현장 순회 건강검진에 도입·실시한다. 1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현장 순회 건강검진은 인증된 전문가가 전국에 있는 300여개 택배 서브터미널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정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CJ대한통운



네이버 커넥트재단, AI 특수교육 콘텐츠 협력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 분야 AI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특수교육 플랫폼에 맞춘 AI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왼쪽부터)국립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과 네이버 커넥트재단 공기중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KB국민은행-NICE디앤알, 포용금융 실천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기업 데이터 및 플랫폼 전문 기업인 NICE디앤알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왼쪽부터)남영민 NICE디앤알 대표이사과 김현욱 KB국민은행 기업고객 그룹 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서울시 청년·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

우리은행은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정일 서울경제진흥원 대외협력 이사과 오지영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이 참석해 금융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은행

‘미래의 집’ 그린 삼성전자… 세계 디자인 어워드 석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8개 수상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
차세대 키즈 로봇 ‘드리모·미니모’

삼성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 2개를 포함해 총 8개의 상을 휩쓸었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2개와 본상 6개를 수상했다. 최고상은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과 키즈 로봇 '드리모와 미니모'에 돌아갔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수상은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레드닷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고상 2개를 포함해 총 16개의 본상을 받았다. 이번 성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

과까지 더하면 올해 레드닷에서만 최고상 4개 등 24관왕이다.

배경에는 디자인 경영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3M과 펄스코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난 마우로 포르치니를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했다. 외국인이 디자인 총괄 사장에 오른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포르치니 사장은 취임 후 개인의 다양성과 표현을 중시하는 '익스프



AI뷰티 미러.

/삼성전자

레시브 디자인(ExpressiveDesign)'을 새 디자인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고상을 받은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은 색상만으로 소모품 관리 방법을 구분하도록 설계했다. 반영구 부품은 회색, 재활용 가능 부품은 녹색, 일반 폐기 대상은 갈색으로 나눠 설명서 없이도 올바른 처리법을 알 수 있다. 이 콘셉트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6 금상, IDEA 2024 금상에 이어 레드닷

최고상까지 받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드리모와 미니모는 AI로 아이의 관심사와 성장 단계에 맞춘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키즈 로봇 콘셉트다. 가정용 본체 '드리모'와 휴대형 '미니모'가 연동돼 아이가 직접 만든 생생한 AI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AI 동반자' 비전을 담았다.

본상 수상작은 ▲피부 상태를 분석해 맞춤 케어를 제안하는 'AI 뷰티 미러' ▲화면 구성을 자동 최적화하는 '파노라마 UX' ▲무안경 3D 대화형 플랫폼 '스페이스 탭' 등이다.

포르치니 사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며 "익스프레스브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장애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GITC 열어 IT활용능력 향상 도움
AI 역량까지 갖춘 인재 육성 초점

LG전자가 장애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교육부터 IT 경진대회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쏟는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오는 15, 16일 양일간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GIT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다.

GITC는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IT 활용능력 향상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대회다.

이번 한국대회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장애 청소년 60명이 참가해 ▲AI 기반 정보 검색, 문서 작업 등을 다루는 e-Combination ▲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 ▲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

ent ▲AI를 활용해 동작·음성·표정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을 만드는 e-Interactive 등 총 4개 종목을 겨룬다. 최종 선발된 4명은 10월 27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한다.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취업 시장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장애 청소년들에게도 AI 기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G전자는 GITC를 통해 단순한 IT 경진대회를 넘어 AI 활용 역량까지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전자는 한국대회에 앞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협력해 전 참가자들에게 생성형 AI 활용, 영상제작, 블록 코딩 등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제공했다. 대회와 별개로 참가자들이 일상 혹은 미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한국대회를 거쳐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에게는 9월 중 별도 집중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NC문화재단, 박현민 작가 신작 출간

그림책 '엄청난 막대기'

NC문화재단은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카치상 수상자인 박현민 작가의 신작 그림책 '엄청난 막대기'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엄청난 막대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노트에 그은 한 줄의 선이 실제 막대기로 변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하나의 막대기는 같이 되고, 두 개는 텐트, 세 개는 시소가 되는 등 아이들이 막대기를 활용해 더 높고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이번 작품은 박현민 작가 특유의 입체적인 연출과 과감한 시점 변화가 특징이다. 평면의 선이 면을 이루고 페이지를 위로 넘기며 공간이 수직으로 확

장되는 구성으로 독자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또 표지를 제외하면 글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표정도 생략해 몸짓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독자가 장면 사이를 스스로 상상하며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재단은 '엄청난 막대기'를 전국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1800여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은 전액 재단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출간을 기념한 특별 전시 '눈 너머 막대기'도 16일부터 28일까지 NC문화재단 사옥 2층 '스튜디오 화이트'에서 열린다. /최빛나 기자

희망스튜디오, 게임 진로·문화 기회 제공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열어
넥슨재단 등 12개 파트너사 참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2026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에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 등 12개 파트너사가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넥슨재단, 슈퍼셀, 카카오게임즈,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방식인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로 행사를 지원한다. 신규 파트너사로는 광주정보문화산

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합류했다. 두 기관은 기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경기장 대관과 이스포츠 경기 운영을 지원한다. T1 이스포츠 아카데미도 올해 처음 참여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넥슨재단과 슈퍼셀은 각각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브롤스타즈' IP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카카오 게임즈는 체험형 CSR 콘텐츠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를 운영하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45인승 '빅음버스'를 제공한다. AW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념품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빅픽처인터랙티브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을 맡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참가자 모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앤쇼핑, 창사 15주년 'CI 리파인' 공개

‘中企 상생·고객과 호흡’ 정의

홈앤쇼핑이 창사 15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한 'CI 리파인'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CI 리파인은 상생과 공익이라는 기업 정신 아래 합리적인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홈쇼핑 채널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만들었다. 홈앤쇼핑을 이를 통해 '간간함이' 있는 정답, 홈앤쇼핑'이라는 슬로건에 따



는 ▲고객의 본질에서 시작하여(Essential) ▲고객의 일상에 닿아(Connect) ▲고객의 자부심이 되는(Confidence)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KBS ◇보임 〈국장급〉△콘텐츠전략본부 방송100년·세계청년대회방송단장 배용화

부음 ▲한국회(JK International 매니저엔지니어)씨 별세, 노은선씨 남편상, 한희라(헤럴드경제 정책부장)씨 동생상, 한희경(우리은행차장)씨 오빠상, 김영

훈(RWKorea 본부장)·하정완(YTN 광고 기획팀장)씨 처남상 = 7월 13일 오후 8시, 가족장, 발인 미정. 61-0403-729-997 ▲김영희씨 별세, 강다영(삼성전자 부장)·강미유씨 모친상 = 7월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 02-3410-3151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로봇의 습격과 60년 시급제의 종말



한용수
작가

1967년 창업 이래 현대자동차 공장의 시계는 늘 ‘시간’을 담보로 굴러갔다. 더 많은 시간 공장을 돌리고, 밤을 새워 잔업과 특근을 할수록 근로자의 지갑은 두꺼워졌고 회사는 성장했다. 이른바 ‘시간-임금 연동형’ 시급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 노사는 이 반세기 넘은 관행을 깨고 ‘완전 월급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건 인간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등장하면서다. 노조는 직감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인간의 야근과 특근 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곧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다. 근로자들은 로봇에게 야근을 빼앗기느니, 고정된 월급으로 소득을 방어하겠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이번 시급제 폐지 요구는 노동계의 패러다임이 더 많은 노동을 통한 고수익에서 기술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소득 안정성 확보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사측 역시 미래차 공정 전환 과정에서 현장 생산직의 거센 저항 없이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 이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듯 하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도 정반대의 모습도 포착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15일까지 사흘간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조기 퇴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시간을 고정하는 월급제를 요구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무기로 회사의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순이익의 30% 성과급’,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성 보전이나 직무 전환이라는 책임은 회피한 채, 하락할지 모르는 미래 소득(월급제)을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압박을 달래기 위해 월급제를 갈등 봉합용 카드로 타협할 태세다. 완성차 본사 직원이 일은 덜 하고 안정적인 고액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안착하면, 그비용 부담과 납기 압박은 고스란히 시급제에 묶여 있는 1·2차 부품 협력사로 전가될 수 있

다. 결국 대기업 노사가 상생을 외치는 사이, 자동차 생태계 하부의 노동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울 좋은 월급제 안착이 아닌, 파업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가 임금 체계의 근본을 뜯어고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단순히 근로 시간만 월 단위로 묶는 월급제는 공장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연차가 쌓이면 무조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어떤 공정을 맡았는지, 공정 효율은 얼마나 높였는지를 반영하는 임금 구조 개편도 동반돼야 한다. 생산직 노동자를 단순 조립공에 머물게 해서는 월급제를 유지할 수 없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사측은 AI 제어, 로봇 유지보수 등 미래차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노조는 기술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인력 전환배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장에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로봇의 가동시간이 늘어나는 시대, 현대차 노사의 완전 월급제 실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히 ‘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사관계의 문법 자체를 혁신해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hys@metroseoul.co.kr

주식도 ‘모 아니면 도’



김지수
신하은
(자본시장부)

“모 아니면 도.”

웃관에서나 어울릴 법한 이 말이 요즘 국내 증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됐다. 기업의 실적보다 하루 변동폭이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장기 투자보다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키워주는 상품에 자금이 몰린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간에서 변동성에 베팅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최근 1년 새 260% 이상 치솟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고치였던 48.55를 뛰어 넘어 지난달 29일에는 96.94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국내 증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한 시장이다. 여기에 두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더욱 빠르게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0조1157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31조9757억원)의 31.6%를 차지했다.

쏠림이 커질수록 시장의 진폭도 함께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난 5월 27일 이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4차례 발동됐다. 올해 전체 발동 횟수는 35회로 지난해 연간 3회의 10배를 웃돌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잦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예외적 상황인 아니라 시장의 일상이 됐다는 의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분위기다. 어느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는지보다

오늘 얼마나 크게 오를지가 더 중요해졌다.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보다 베팅이 더 쉽다는 말도 나온다. 수익이 나면 실력이고 손실이 나면 운이 없었다고 여기는 분위기는 투자보다 도박 심리에 더 가깝다.

물론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투자 선택권을 넓혀줬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하지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특정 종목 쏠림을 더욱 키우는 양날의 검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은 웃음거리에서 웃으며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누군가의 노후자금이고, 누군가가 평생 모은 자산이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잃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다. 오랜 숙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도 전에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godhe@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때는 반드시 옵니다. 60년생 억지로 밀어부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세요. 72년생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세요. 84년생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됩니다.



소

49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61년생 무리한 목표는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무난한 하루입니다. 8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62년생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까. 74년생 양보하면 갑니다. 86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끼

51년생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습니다. 63년생 자만하지 마세요. 75년생 방심하면 큰 화를 입습니다. 87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염

52년생 건강이 걱정됩니다. 64년생 괴로움 끝에 초지를 관철하면 좋은 수가 생깁니다. 76년생 나쁜습관으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88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마세요.



뱀

53년생 귀하게는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65년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깁니다. 77년생 건강증을 주의하세요. 89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말

54년생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66년생 친근하게 만나는 이성에게 연락해 보세요. 78년생 오늘은 일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90년생 근교로 여행을 떠나세요.



개

55년생 매사에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가 기대됩니다. 67년생 걱정했던 일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79년생 오랜만에 돈맛을 봅니다. 90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옵니다.



원숭이

56년생 투기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세요. 68년생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세요. 80년생 북방향이 갑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닭

57년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69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1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줍니다. 93년생 그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릅니다.



돼지

58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갑니다. 70년생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82년생 직장문제도 점차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94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돼지

59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71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뒷물이 많으면 앞물이 맑습니다. 95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김상회의四季

동기감응(同氣感應)

천지감응이 인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정신적 질서라 한다면 지구 내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기운의 작용인 동기감응을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다. 영웅호걸이나 큰 인물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제사를 잘 모시고 조상 묘를 잘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개인들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 않던가. 천지가 상통하거나 감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이 서로를 움직인다는 인식 아래서 우리 인간들이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발로는 땅을 딛고 살기에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다는 ‘동기감응’을 생각한다. 특히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풍수지리는 오랜 세월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음택 풍수로서 장묘 풍수에서는 조상과 같은 DNA를 공유하고 유전 받는 후손은 조상의 기운에 감응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력 후보자가 조상 묘를 이전했다는 등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위에 오른 고종도 원래는 왕위 순번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할아버지를 명당으로 이장한 후에 태어나 조상의 왕기를 받았기에 왕위에 오른 것이라는 담화도 전하며,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인 화안대군은 1차 왕자의 난 중에 공을 세웠으나, 손아래 동생인 이방원과 충돌한 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하여 이방원이 태종에 오른다. 그후 화안대군이 죽고 묘를 쓴 곳이 제왕지지라고 지사가 보고하자 태종이 대노하며 왕기를 없애기 위해 무덤 뒤의 능선을 잘라버렸다는 일화도 있으며 실제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파는 물보다 진하다는 서사가 있듯 같은 파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몸은 사라져도 의식은 최소한 2백년 정도의 시간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1	2	8	7	9	9	8
9	7	6	9	2	6	2	1	8
9	2	8	1	8	9	7	2	6
2	8	9	2	9	1	8	6	7
8	9	6	7	9	8	1	2	2
2	1	7	8	6	8	9	9	2
1	8	9	2	7	2	6	8	9
7	6	2	8	1	9	2	8	9
8	9	9	6	2	2	8	7	1

8	7	1	9	2	9	6	8	2
8	2	9	8	1	6	2	7	9
9	6	2	2	8	7	1	8	9
2	8	6	9	2	1	7	9	8
9	9	2	7	8	2	8	1	6
1	8	7	6	9	9	2	2	8
7	1	8	2	9	8	9	6	2
6	9	9	8	7	2	8	2	1
2	2	8	1	6	8	9	7	8

지방대 육성, 지자체가 주도하고 청탁 등 부정입학 시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의결
지역 앵커사업 평가 후 예산 배분
대학혁신 위한 규제특례 체계화
지방대 육성계획 주체 시·도지사로
부정입학 허가취소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절차를 마련한다. 사전 공모·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자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근거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의 절차를 체계화했다. 규제특례의 신청을 매년 9월 정기와 수시로 나눠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따라,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시·도의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경 조감도.

/서울시

광화문 한눈에... 세종문화회관 옥상 개방

서울시, 연내 옥상정원 조성·개방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북악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공공 옥상정원으로 조성해 연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옥상정원 조성고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마쳤다. 세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사에 착수한 뒤 연내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세종문

화회관 옥상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서울 도심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옥상에서는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

또 옥상에는 녹지와 휴게공간, 전망데크, 카페가 들어선다.

외부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녹지와 휴게시설 배치, 카페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도자재단-NH농협, 경기도자비엔날레 지원

성공 개최 위한 후원·홍보 업무협약

한국도자재단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과 홍보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13일 NH농협은행과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후원 유치와 홍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자재단은 NH농협은행을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공식후원은행으로 지정하고, 비엔날레 휘장과 로고 사용 및 공인 업무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한다. NH농협은행은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5억 원을 후원하고, 전

국 영업망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NH농협은행이 공식후원은행으로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도자문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올해 13회를 맞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전 세라피아와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김대의 기자

우이신설선 무선제어 도입... 혼잡도 낮춘다

서울시, 차세대 신호시스템 도입
최고 혼잡도 약 22% 감소 전망

서울시는 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은 무선 통신으로 열차가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로 열차 간 간격을 제어하는 신호 체계다.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해 운행 시간을 단축하고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궤도 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장치인데 이는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이신설선은 새 장치를 적용하는 첫 노선이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이다.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많아 현재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른다.

데이터 중심 열차 주행과 관제가 가능해지면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진다. 열차 혼잡도가 20% 이상 감소하고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열차 평균 속도가 향상되고 운행 간격이 단축되면 우이신설선 최고 혼잡도는

현재 165%에서 향후에는 143%로 약 2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이며 150% 이상은 밀착 상태다.

시는 실시 협약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지상 신호 설비 구축, 신호 장치 개조, 성능 검증, 통합 시험, 시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2032년 우이신설선 연장 개통과 함께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새 장치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시는 향후에는 혼잡도가 높은 9호선, 2호선에도 새 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신설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원스톱 대응
조사부터 법률상담, 치유까지 책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인 교권보호단을 운영하고, 피해 교

원을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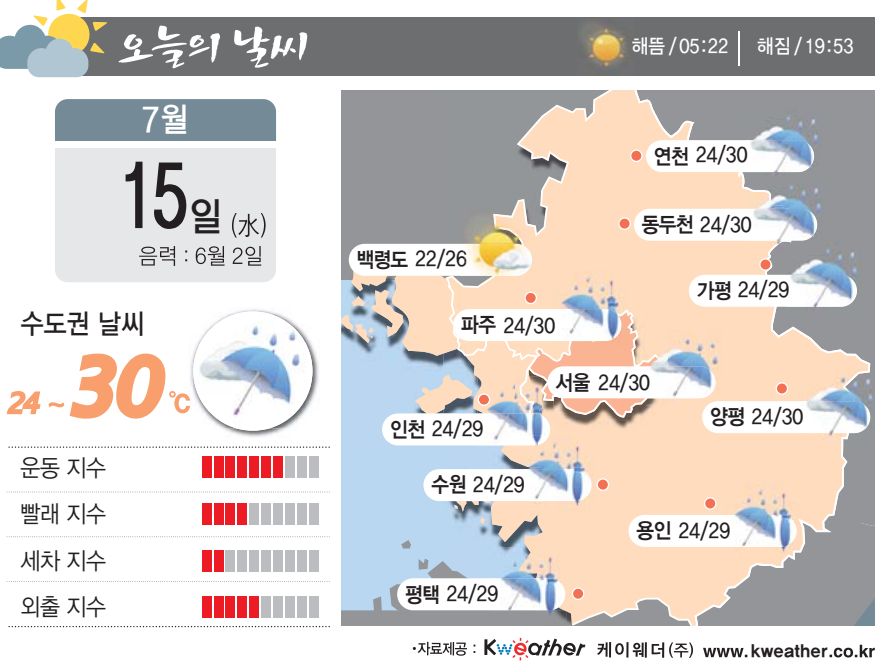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1대 1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또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제와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美연방항공청, 조사 종료...스페이스X, 16일 스타십 13차 시험비행
▲반도체 급락에도...애플 주가 ‘사상 최고치’

/사진 뉴시스

▲미국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선언에 국제유가 한 달 만에 최고치
▲“파라마운트-워너 인수, 경쟁 사라질 것”...美 12개주 반대

▲5만명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또 5만명?...폭스바겐, 감원 확대 카드 꺼냈다
▲‘드론 공습’ 우크라이나... 푸틴 “몇배 더 강력한 보복” 경고



물류비 불안에
GMO 규제까지
식품업계 산 넘어 산
L1

metro®

Life

한 번 주사로
연골 재생
세포치유제 출격
L2



中 자동차 제조 마진 한계... 자율주행 기술서 수익원 찾는다

중국 첨단산업지도

④ 로봇택시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완성차 제조 수익성이 낮아진 가운데 로봇택시 운임과 ADAS 칩·솔루션 공급, 라이더 등 후방 부품 사업에서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로봇택시 상업화 속도 내는 중국

중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로봇택시 운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제한된 구역의 시험 운행에 머물렀던 자율주행 서비스가 주요 도시의 유료 운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로봇택시 서비스 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두의 로봇택시 서비스 '아폴로고(Apollo Go)'는 지난해 11월 기준 22개 도시에서 로봇택시를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주문은 1700만 건, 자율주행 누적 거리는 2억4000만km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운전자 없이 달린 완전무인 구간만 1억4000만km 이상으로 집계됐다.

포니AI(Pony.ai)는 지난해 11월 나스닥에 상장하며 홍콩 증시에도 동시 입성했다. 운행 차량은 1446대 이상으로, 연말까지 3000대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1선 도시 4곳에서 모두 완전무인 상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위라이드(WeRide)는 1200대 이상의 차량으로 30개 도시와 10개국에서 테스트와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우버와 협력해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완전무인 유료 운행 허가를 받았다.

中 20여개 도시에서 로봇택시 운행 허가
바이두 '아폴로고' 자율주행 2.4억km
포니AI·위라이드 등 무인 상업화 속도

자율주행, 수익구조 변화로 이어져
완성차 부진 속 자율주행 기술기업 성장

◆완성차 수익성 악화에 커지는 자율주행 매출

중국 증시에서는 자율주행을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수익 구조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종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로봇택시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완성차 판매에서 발생하는 제조 마진과 자율주행 기술에서 발생하는 반복 수익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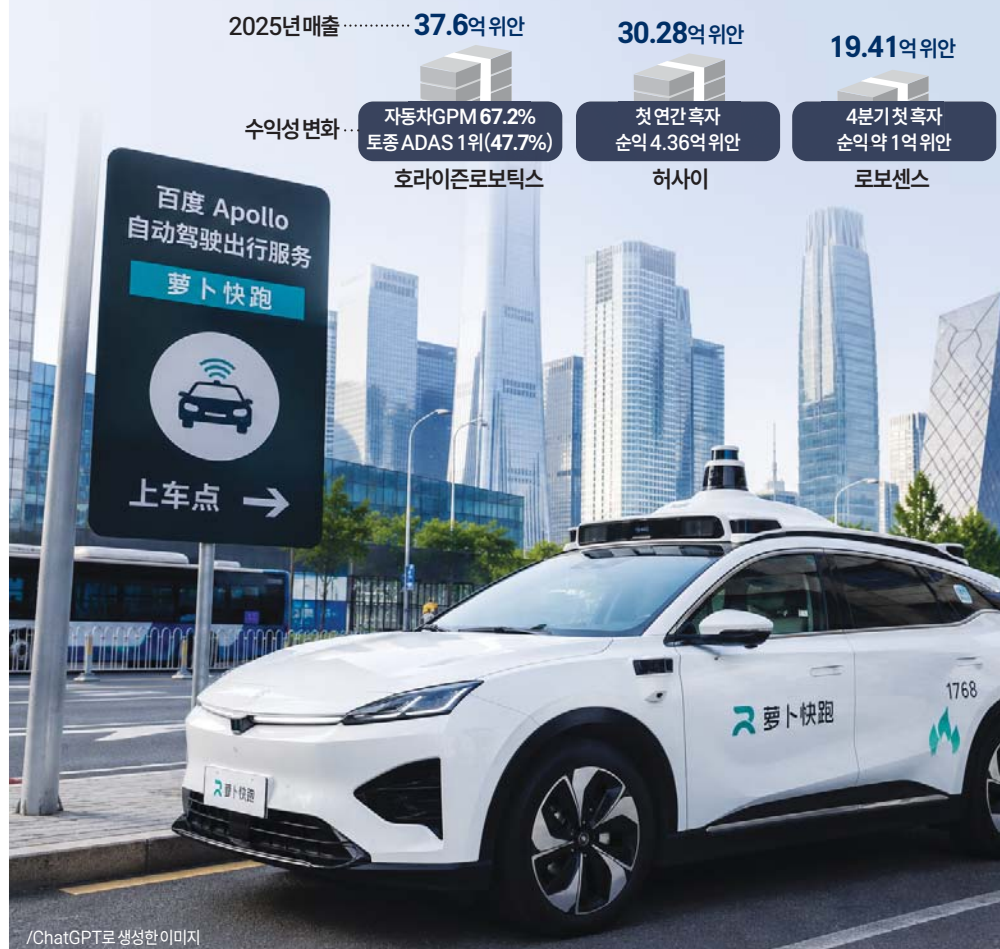
배경에는 완성차 제조 수익성 악화가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 판매이익률은 지난해 12월 2.9%, 1분기 전체로도 3.2%에 그쳤다. 규모 이상 공업기업 평균인 약 5.8%의 절반 수준이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보다 0.9% 줄었고 이익은 30% 감소했다. 판매량을 늘려도 이익이 따라오

중국 주요 로봇택시 기업 실적과 계획

	2025 로봇택시 실적	차량·확장
바이두 아폴로고 (홍콩)	-2026년 1분기 완전무인 운행 320만 건 -3월 주간 운행 35만 건 이상	-두바이 진출 추진 -27개 도시 운영
포니AI (나스닥)	-총매출 전년 대비 20% 증가 -로봇택시 서비스 매출 128.6% 증가 -운임 매출 약 400% 증가	-2026년 5월 기준 1700대 이상 -연말 3500대 이상 목표
위라이드 (나스닥)	-로봇택시 관련 매출 1억4800만 위안 -전년대비 209.6% 증가	-전체 자율주행차 2,113대 -로봇택시 1,125대
차오차오추싱 (홍콩)	-2030년 로봇택시 사업 매출 약 150억 위안 추정	-2030년 전용 로봇택시 10만 대 배치 목표

자료/시드윈커뮤니케이션스

중국 자율주행 부품·칩 기업 실적



지 않는 구조가 심화된 셈이다.

중국 전기차 1위 BYD도 가격 경쟁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BYD의 2025년 매출은 8040억 위안(약 179조2840억원)으로 3.5% 늘었지만 순이익은 326억 위안(약 7조2695억원)으로 19% 줄었다. 연간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에도 원가 부담과 가격 인하 경쟁이 수익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숫자가 불기 시작했다. 바이두 아폴로고는 2026년 1분기 완전무인 운행 320만 건을 처리했다. 3월 주간 운행은 35만 건을 넘겼고, 4월 기준 누적 대중 운행은 2200만 건을 돌파했다. 6세대 로봇택시 차량 RT6는 대당 가격을 약 20만 위안 수준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져 단위경제 개선의 핵심으로 꼽힌다.

포니AI의 지난해 총매출은 9000만 달러(약 1364억4000만원)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로봇택시 서비스 매출은 128.6%, 운임 매출은 약 400% 늘었다. 운행 차량은 2025년 말 1000대를 넘겼고, 2026년 5월 기준 1700대 이상

으로 확대됐다. 연말 차량 목표도 기존 3000대에서 3500대 이상으로 높였다.

위라이드도 2025년 총매출 6억8500만 위안(약 1525억8375만원)으로 전년보다 89.6% 증가했다. 로봇택시 관련 매출은 1억4800만 위안(약 329억6700만원)으로 209.6% 늘었다.

플랫폼 사업자도 가세하고 있다. 지리 계열 차오차오추싱은 2030년까지 전용 로봇택시 10만 대 배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증권가에서는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2030년 로봇택시 사업 매출이 약 150억 위안(약 3조3417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ADAS·라이더·해외사업으로 넓어지는 기술 마진

로봇택시보다 먼저 매출이 커지는 분야는 완성차에 공급되는 ADAS 칩과 자율주행 솔루션이다. 차량 판매 대수에 따라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라 상용화 속도도 빠르다.

화웨이는 차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헨 쿨(乾崮) 등 지능형 주행 솔루션을 세레스, 상하이GM우링, FAW홍치 등에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 발표 기준으로 관련 솔루션은 25개 브랜

드, 50여 차종, 약 170만 대에 탑재됐다. 완성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기술 공급 매출도 함께 쌓이는 구조다.

ADAS 반도체 기업인 호라이즌로보틱스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2025년 매출은 37억6000만 위안(약 8377억2800만원)으로 57.7% 증가했고 자동차 부문 매출총이익률은 67.2%에 달했다. 중국 토종 브랜드 기본 ADAS 솔루션 시장에서는 47.7%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20만 위안 이하 차량의 중·고급 지능주행 솔루션 시장에서도 44.2% 점유율을 보였다.

ADAS칩·자율주행 솔루션 매출 증가
완성차에 공급... 상용화 속도 빨라
라이더 업체 흑자 진입... 부품 매출처

시험운행 확대 등 해외시장 기회 넓혀
운행허가·보험 등 수익화까지 시간 필요

라이더 업체들은 흑자 구간에 진입했다. 허사이는 2025년 매출 30억2800만 위안(약 6747억2924만원)으로 전년보다 45.8% 증가했고, 순이익 4억3600만 위안(약 971억5388만원)을 기록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라이더 출하량은 162만 대로 세 배 늘었고 매출총이익률은 41.8%를 기록했다.

후발주자 로보센스도 지난해 4분기 창사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냈다. 자동차용 라이더뿐 아니라 로봇용 라이더 출하가 30만 대를 넘기며 1년 새 11배 이상 증가한 점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다.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를 넘어 로봇과 물류 장비로 확산되면서 부품업체의 매출처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사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 바이두 아폴로고는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협약을 맺고 초기 시험운행 이후 차량을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부다비에서는 위라이드가 우버와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포니AI도 2026년 말까지 20개 이상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확대가 곧바로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흑자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차량 투입이 늘어날수록 연구개발과 원격관제, 보험, 정비 비용도 함께 커지는 만큼 대규모 수익성 확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도시별 운행 허가과 보험 체계, 데이터 이전 규제, 현지 운영 파트너 확보가 수익화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로봇택시와 ADAS, 라이더에서 실제 매출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변화"라며 "다만 차량 확대에 따른 비용과 해외 규제 변수를 감안하면 자율주행이 완성차 제조 부진을 단기간에 모두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익 원으로 검증받는 단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앞둔 이강인, 국내서
메디컬 체크 진행
▲'첫 8강 쾌거' 노르웨이 월드컵대표팀 금의환향
...9만 인파 운집
/사진 뉴스시스

▲경찰, '홍명보 선임' 수사 박차...축협 전력강화
위원 잇달아 소환
▲류정환 제작 '맥 앤 베스' 2028년 초연...프랭크
와일드혼 작곡

▲'스파이더맨4', 꿈수 사전 예매...“등급 심의 없
이 예매 오픈”
▲“그때 그 시절 LCK가 돌아온다”...‘레전드 매
치’ 8월 개최